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6호 HYUNBULNEWS.COM 2026년 4월 29일(음력 3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서울시의회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하라"

조계종 종평위 · 중신회 등
서울시의회 앞서 기자회견
"정치 중립 · 공정성 위배"
임시회 동안 1인 시위 진행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불교단체들이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계종 포교사단,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등 불교계 주요 포교·신행단체들은 4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불교단체들은 박칠성 의원 등 17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용수 포교사단 부단장은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청년들의 문화교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명백한 특정 종교 행사"라며 "서울시의회가 조례까지 제정해 이를 지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종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종교 행사에 오용되면 안 된다"며 "국가의 종교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지원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혁 중앙신도회 팀장도 "4월 6일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이 발의된 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불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서울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도 전달했지만 여전히 조례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혜정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포교간사는 조례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전 간사는 "조례안 제15조에 명시된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은 시민의 혈세가 특정 종교단체의 자산 형성에 활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이는 재정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숙박·급식시설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청년단체 활동 지원 등이 규정된 제6조부터 제17조를 들어 "사무 범위를 일탈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해당 종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내부 사무를 지자체의 사무로 명문화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 행사이자 행정의 적정성 원칙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 조례안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고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며 "타 종교와의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향후 유사한 지원 요구가 빗발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장과 교육감에게 종교행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강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은 타당하지만, 국가정책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등은 4월 21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아 조례안의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남북 평화' 발원 봉축탑 불 밝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북한의 묘향산 '보현사 탑등'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환하게 밝혔다. 연등회가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북한의 문화유산을 봉축등으로 선정 · 제작한 건 처음이다. 사진은 4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봉축점등식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불 · 법 · 승 구호에 맞춰 점등 버튼을 누르는 모습. 글=김내영 기자 · 사진 제공=조계종

조계종 원로의원에 도법·영담·정완 대종사

원로회의, 4월 22일 회의서…진우 스님 "원로 말씀 경청"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취성 도법 대종사와 영담 덕운 대종사, 지봉 정완 대종사가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4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81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제23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추천된 도법·영담·정완 대종사를 신임 원로의원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의장 자광 대종사는 개회사에서 "원로의원으로 새롭게 모시게 될 세 명의 스님은 종단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분들"이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대종사 스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80차 회의에서 원로의원으로 선출돼 첫 회의에 참석한 원산 도명 대종사는 의원선서를 통해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원로회의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서원했다.



도법 대종사 영담 대종사 정완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원로 스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종도와 국민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번 회의에서는 종단 안팎으로 존경받는 용주사 정완 스님, 쌍계사 영담 스님, 금산사 도법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선출하는 인연을 맺고자 한다"며 "평생을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신으로 정진해 온 어른 스님들께서 원로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종도의 앞길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봉축 앞두고 정관계 "국민 화합" 발원

불교도 봉축대법회 봉행…국무총리 등 참석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한국불교 주요 종단 지도자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가 주최하고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이 주관한 '불기 2570년 대한민국 불교도 봉축대법회'가 4월 20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회 의장 자광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종단협 수석부회장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을 비롯해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전국 재가불자 등 700여 명이 함께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전성환 대통령실 수석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국민 화합과 상생을 기원했다. 3면에 계속

임은호 기자

재적사찰 연등달기 캠페인

봉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축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희망의 연등을 밝힙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연등 하나를 밝히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연등 공양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등불이자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의 한 모습입니다.
서원과 기도를 담아 밝힌 연등공양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퍼져 마음에는 평안이
세상에는 화합의 기운이 두루 퍼지기를 발원합니다.

광화문 밝힌 '보현사 탑등'…"남북 평화 발원"

봉축위 · 연등회보존위 4월 22일
광화문광장서 봉축점등식 개최
탑등 좌우 반가사유상도 조성
생동감 더하는 조명 연출 특징
진우 스님 "재회 · 통일 빛 되길"

글=김내영 기자 · 사진=이현희 수습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보현사 탑등에서 세종대왕 동상까지 탑돌이를 하며 온 세상에 평화의 기운이 퍼지길 기원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북한의 묘향산 '보현사 탑등(燈)'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환하게 밝혔다. 연등회가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북한의 문화유산을 봉축등으로 선정·제작한 건 처음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각 종단 주요 스님들과 불자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봉축점등식은 우리 마음속 번뇌를 지혜로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의 평안을 기원하는 불교 고유의 전통 행사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연등회 외국인 서포터즈인 LLF 프렌즈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점등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등 종단 대표들과 정동영 통일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김영배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이 점등자로 나서 불법승 구호에 맞춰 '보현사 탑등'을 밝혔다.

'보현사 탑등'은 북한 묘향산 보현사 소재 8각 13층 석탑을 원형으로 삼아 전통 한지등으로 제작됐다. 높이는 19m에 달한다. 이번 봉축등은 세계평화와 남북 화합·공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고려시대 대표 석탑을 구현했다. 보현사 탑등 좌우에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높이 6m)이 조성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기존에는 단일 색상으로 점등됐지만, 올해는 생동감 있는 조명 연출을 통해 장엄함을 한층 강조했다.



참석 대중들이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올해 봉축 표어에 맞춰 광화문을 수놓은 장엄한 불빛이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길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고도로 발달한 AI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인의 마음은 더욱 각박해지고 고립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지식은 넘쳐나되 지혜는 부족하고 변화가 빠르되 온기는 식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불교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선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봉축등과 관련해서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서산 대사의 서원을 언급하며 "우리가 밝히는 자비의 빛이 휴전선을 넘어 묘향산 보현사 팔각십삼층석탑까지 비추는 '재회와 통일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오늘의 등불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모두를 비추는 '공존의 빛'"이라며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합장하는 그날을 발원하며, 이 등불이 세상의 편견과 미움을 녹여내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년 전 2005년 9월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당시 묘향산에 서 있던 순간을 회고했다. 정 장관은 "당시 평양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었고, 베이징에서는 남·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자리에 모여 6자 회담을 열고 있었다. 보현사에서 '묘향산의 향기가 평양을 넘어 베이징으로, 그리고 온 한반도로 퍼져나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며 "비록 (서산 대사의) 합동다례재는 기다림의 영역으로 남아 있지만, 회담은 결실을 보였고 그때 남과 북이 서로 주고받았던 추도사와 서신 속에 '우리는 본래 하나'라는 변치 않는 진리가 흐르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지금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멈춤이 곧 포기는 아니다. 정부는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을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폐허가 된 남북관계 위에도 신뢰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아침을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혜로운 이가 마음을 다스리듯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시민의 삶을 잘 살피고, 일상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불편을 덜어 안락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축원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한반도 전역을 두루 비춰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발원했다.

끝으로 참석 대중은 석가모니불 정근과 함께 보현사 탑등에서 세종대왕 동상까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온 세상에 평화의 기운이 퍼지길 기원하는 탑돌이를 펼쳐 장관을 이뤘다.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 전역에 약 5만 개의 봉축 가로연등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환하게 비출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 행사는 5월 16~17일 서울 일원에 열리며, 전통등 전시 등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이어진다.

진우 스님 "마음 평안해야 지혜 나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
"품격 있는 도정 활동"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어떤 것이든 담아낼 수 있다"며 매사에 평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4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추미애 후보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한다"며 "어떻게 보면 상대를 상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본인 스스로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겨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품격 있는 도정 활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내영 기자

종회의원 후보 용주 스님 '사실상 당선'

중선위, '자격 이상 없음' 결정
5월 7일 은해사 육화원서 '확정'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용주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4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2차 회의를 열고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용주 스님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기호 2번으로 입후보했던 선지 스님은 4월 20일 후보 사퇴했다.

이로써 단독 후보인 용주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선거법 제74조 2항에 의거, 5월 7일 오후 1시 은해사 육화원에서 개최되는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김내영 기자



취임 1300일 맞은 진우 스님 "한국불교 중흥" 108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300일을 맞아 한국불교 중흥과 수행 전통 확립의 서원을 다시 한번 다졌다. 진우 스님은 4월 19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봉은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렸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매일 108배 수행을 이어오며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해 왔다. 108배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총무원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봉은사 부주지 각진 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 스님과 봉은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함께했다. 글=김내영 기자·사진 제공=조계종

2028 태화강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유치 기원

불기 2570년(2026) 태화강연등축제 · 국제 사찰음식 문화 축제

울산태화가람대축제

볼거리
- 부처님 이운식
- 장엄등 전시
- 청춘극락콘서트
- 봉축법요식
- 선재스님과 명천스님의 쿠킹콘서트

즐길거리
- 사찰음식 체험 및 전시
- 만발공양
- 붓다존 체험 프로그램
- 명상 힐링존
- 제등행렬

2026년 5월 8일(금) ~ 5월 10일(일) (3일간)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둔치

주최 사단법인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주관 태화강연등축제봉행위원회
후원 영축총림통도사,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 사단법인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사)태화복합문화공간만디, 태고종울산교구, 천태종정광사, 원효종울산교구, 진각종, BBS울산불교방송, BTN불교TV, UBC울산방송, 울산 BNK 경남은행

“화쟁 지혜로 갈등 파도 넘어서자”

불기 2570년 대한민국 불교도 봉축대법회

1면에서 이어짐

불교계 · 정관계 인사 700명 참석
국민 화합 · 상생 가치 확산 다짐
진우 스님 “도반 될 때 대도약”

정계 인사 “국민 통합 · 화합” 강조
사회통합 · 평화 기원 목소리 이어
‘화합 물결, 상생 길’ 합수식 눈길

글=임은호 기자 · 사진=박지운 수습기자

국민 화합과 상생을 발원하며 불교계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 등 7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법회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선명상 수행의 의미를 나누며 시작됐다.

진우 스님은 봉축법어에서 “화쟁의 지혜로 갈등의 파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화쟁’ 가르침을 통해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 하나의 큰 바다를 이루듯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일러 주셨다”면서 “정치와 사회의 모든 지도자가 상대를 꺾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도반으로 여길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찾고 대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국불교의 기개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강력한 스스로의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수호하되,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정신으로 평화를 일궈 나가야 한다”면서 “남과 북, 북과 남의 대화가 단절돼 생긴 불안의 울타리를 넘어 이 땅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의 꽃이 만개하도록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는 동체대비 손길을 강조하며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에 따라 세대 통합과 국민 평안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스님은 “젊은 불교, 선명상의 향기로 세상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중생이 차별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자비의 길로 나아가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나라의 안녕과 사회 통합,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의 개회사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봉축 축원에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인사에서 “오직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고행한 부처님 마음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측은지심과 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가 ‘화쟁’ 정신을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이를 품는 자비의 마음과 지혜롭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키워 세상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불교리더스포럼이 주관한 ‘불기 2570년 대한민국 불교도 봉축대법회’가 4월 20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봉행됐다. 700여 동참자들이 부처님 지혜의 봉을 흔들며 갈등의 파고를 넘어 대도약을 이룰 것을 발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세대, 지역, 종교, 정치 등 여러 영역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불안한 세계 정세까지 더해져 개인의 삶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심에 불교 전통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자들이 먼저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당 대표와 국회정각회장 등은 축사를 통해 국민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진행된 서울국제박람회와 국제선명상대회를 언급하며 “AI시대, K-컬쳐를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불교가 우뚝 설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관심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심은 휴전선을 넘나들 수 있는 큰 정신”이라며 “호국정신을 발휘해 불교가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데 정치계가 먼저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고단한 삶에 온기를 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쟁과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 시대일수록 상생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보듬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도 “정각회는 부처님 가르침 아래 여야를 넘어 소통과 협력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화합의 물결, 상생의 길’을 주제로 한 합수식은 불교계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연출됐다. 각계 인사들은 혼탁했던 연못에 공존, 화합, 상생을 상징하는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통해 연못이 점점 청정해지고 화합의 물결, 상생의 길을 불교도가 함께 열어가길 염원했다.

동참 대중들은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대표 낭독한 봉축발원문에서 “정치, 군사 갈등으로 벌어지는 전쟁과 환경, 기후위기로 발생된 기아, 경제 불안정 등의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이 시대를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내려 달라”고 발원했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 국보 승격

국가유산청, 23일 지정 공고
조선 동종 양식 완성작 평가

조선 전기 동종 완성작으로 평가받는 ‘남양주 봉선사 동종’이 국보로 승격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조선 전기의 대형 동종 ‘남양주 봉선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의 제8대 국왕 예종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자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하여 모신 동종이다. 이 동종은 조형적으로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한국 동종의 문양 요소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강희맹(1424~1483)이 짓고, 정난종(1433~1489)이 쓴 주종기(鑄鍾記)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 봉안처, 제작 장인 등이 담겨 있는데 일부 장인은 흥천사명 동종이나 옛 보신각 동종 제작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대형 동종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이운 없이 제작 당시의 봉안처인 봉선사 종각에 그대로 봉안돼 있고 균열이나 구조적 결함이 거의 없고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다”면서 “또한 한국 동종의 양식사에서 조선시대 동종의 전형을 완성한 기준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고려시대 상감 청자인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 조선시대 초상화인 ‘유효걸 초상 및 궤’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으며 이미 지정돼 있는 보물 ‘윤증 초상 일괄’에는 초상 1점과 영당기적 1점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 등에 대해 소유자 등과 협조해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중동 전쟁 끝내고 평화 이루길”

7대 종교 대표 전쟁 종식 입장문
당사자 자제 · 국제 외교 노력 요청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이 4월 17일 중동 지역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최근 중동 지역의 갈등은 여전히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시적인 멈춤이 또 다른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의 의지로 반드시 확고한 종전을 이뤄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제사회 또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한층 더 책임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갈등도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공존을 향한 길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김포시민 함께한 줌머 설 축제 '보이사비'

재한줌머인연대, 4월 19일
김포호수공원서 새해 축제
"평등 · 화합 · 희망 나눈 자리"
시민 참여 문화축제 '눈길'

김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재한줌머인연대는 4월 19일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제21회 보이사비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 동참자들이 평화 행진을 하고 있다.

"바뚜루뚜루(안녕하세요)! 21번째 줌머인들의 축제, 보이사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난민 공동체인 재한줌머인연대 차르마 니킬 회장이 고국의 언어로 2026년 보이사비 축제의 시작을 알리자, 축제에 함께한 500여 줌머인과 김포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한줌머인연대는 4월 19일 김포 한강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제21회 보이사비(Boi-Sa-Bi)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HT) 줌머(Jumma) 공동체의 전통 설 명절을 기념하는 자리로 지역 시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줌머인은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산악지대의 선주민으로 차크마, 마르마 등 11개 민족으로 구성된 소수민족이다.

이날 축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줌머 11개 소수민족 대표와 내빈,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꽃받침 전통의식과 평화 행진으로 시작됐다.

보이사비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줌머 소수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방글라데시 신년인 4월 14일 전후로 연말과 새해 첫날에 걸쳐 3일간 진행된다. 꽃 축제와 나눔, 조상 기림 등의 의례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축제에서 니킬 재한줌머인연대 회장은 "보이사비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평등과 화합,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 자리"라며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줌머 공동체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넬 재한줌머연대 고문도 "줌머인들은 오랜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왔다"며 "보이사비 축제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또 김포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축제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평등과 용서, 화합 정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에 함께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20년 넘게 축제를 이어온 재한줌마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 시장은 "김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며 "줌머 공동체의 전통 축제가 시민들과 함께 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시민으로서 일상을 누릴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재한줌머인연대가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있었다. 니킬 회장과 로렐 고문은 김포 연운사와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했다.

축제는 줌머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트리푸라 지역 춤과 전통 음악 공연, 어린이 합창단 무대, 악기 연주 등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전통놀이도 진행됐다. 특히 줌머 2세들이 공연을 통해 축제에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줌머 2세들에게도 줌머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재한줌머인연대 측의 설명이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줌머 전통 음식 체험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재한줌머인연대 측은 "보이사비 축제는 줌머 공동체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축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원수좌회, 선원 사진·영상 자료집 편찬

4월 21일 대구 동화사서 출정식
전국 선원 수행 사진 · 영상 모음
"조계종 정통 수행법 선 진작"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가 한국불교 수행 전통의 근간인 선원의 현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선원 사진·영상 자료집 편찬'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4월 21일 대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 설법전에서 '선원 사진·영상 자료집 편찬 출정식'을 봉행하고 전국 선원의 수행 전통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조계종 총무원 후원으로 추진된다.

상임대표 불산 스님은 수좌회 의장 환경 스님이 대독한 출정사를 통해 "이 자료가 미래 수행자들에게 소중한 참고가 되고 조계종의 정통 수행법인 선과 선풍을 크게 진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으로도 선수행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원과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은 축사에서 선원 수행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자료집 편찬이 선풍을 계승하고 수행 가풍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도 "선원 수좌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스님들의 가르침과 선원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면 역사적으로 아주 귀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기원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이번 자료집 편찬을 통해 전국 선원의 수행 환경과 전통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한편, 변화하는 수행 환경 속에서 선풍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불교계 '지구의 날' 환경실천 다짐

4월 22일 조계사 앞서 캠페인
일회성 아닌 일상 실천 당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불교계가 생명존중과 환경보호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 동참자들은 기후위기와 생태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한 지구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불교기후행동(대표 일문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은 4월 22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생명가치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구의 고통, 불교계가 함께 끕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에서 동참자들은 지구를 위한 실천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동참자들을 대표해 낭독한 발원문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언급하며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되찾을 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피켓을 든 동참자들은 덜 소비하고 덜 버리는 삶,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등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며 "지구의 날을 일회성 기념일이 아닌 일상 속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운 수습기자

동국대 BMC 선센터 '후불탱화' 점안

4월 21일 점안법회 봉행
돈관 스님 "정체성 확립"
중앙광장 '白象' 제막도


동국대 바이오메디컬캠퍼스는 4월 21일 종합강의동 1층 선센터에서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새로 조성된 후불탱화에 점안의식을 하는 모습.

동국대 바이오메디컬캠퍼스 선센터를 장엄할 후불탱화가 새롭게 조성됐다.

동국대 바이오메디컬캠퍼스(이하 BMC)는 4월 21일 종합강의동 1층 선센터에서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BMC 학생들의 신행을 책임지는 학내 도량인 선센터를 장엄하는 후불탱화는 부산무형문화유산 목조각장 청원 스님(WISE캠퍼스 석좌교수)이 조성했다.

도상은 인도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촉지인을 맺고 악귀를 조복시키면서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담았다. 부처님 양옆에는 10대 제자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등 12보살들이 설법을 듣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증명법주로서 법상에 오른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학교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불사의 회향을 축하했다. 스님은 "BMC가 2011년 설립됐는데 오늘에서야 선센터가 마련되고 후불탱화가 조성됐다는 것은 시절인연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은 불사가 회향됐다는 점이 환희롭기만 하다"고 술회했다. 이어 "정체성은 '바를 정(正)'에 '몸 체(體)'에 '성품 성(性)'을 쓴다. 이는 바른 실상을 나타냄을 의미한다"면서 "오늘이 바로 BMC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다. 법당의 후불탱화가 점안된 만큼 학생과 교직원이 마음을 달래며 신행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 총장은 "BMC 선센터는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전법 포교의 공간이자 불교동아리 재학생들에게는 마음을 쉬고 자신을 돌아보는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나아가 생명을 탐구하는 학문의 장 속에서 생명존중과 자비의 가치를 체득하는 BMC만의 특별한 신행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점안법회 후에는 BMC의 상징물이 될 '백상(白象)' 조형물 제막식도 열렸다. 중앙광장에 조성된 '백상'은 1971년 개교 65주년을 기념해 제42회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정성으로 서울캠퍼스에 조성됐다. 2015년 동국대의 새로운 도약과 BMC의 발전을 기원하며 현 위치로 이전했다. 고양=신중일 기자

금강종 종정 송천 대종사 원적

2008년 제2세 종정 추대



대한불교금강종 제2세 종정 무학당(茂學堂) 송천(松泉) 대종사〈사진〉가 4월 13일 원적에 들었다.

송천 스님은 1967년 부산 범어사에서 덕인당 스님을 은사로, 일붕 서경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며 불문에 들었다. 1970년 경산 천성사에서 일붕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하고 '무학'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1989년 일붕불교대학, 1992년 일붕삼장대학원을 졸업했고 2007년에는 네팔 탕고대학교에서 명예 종교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금강종 제2세 종정에 추대됐다. 대구 인각사 조실로 주석하며 후학 양성과 종단 발전에 헌신해 왔다. 노덕현 기자

"선명상으로 마음 다스리면 세상 정토"

4월 17일 도선사 초하루 법회서
분별심에서 벗어나 '보살' 삶 강조



음력 3월 1일 초하루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세상이 곧 정토가 된다"고 선명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4월 17일 삼각산 도선사에서 초하루 법회에서 법문에 나섰다. 스님은 먼저 우리 사회의 불안한 현실을 짚었다. 진우 스님은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불안하고 편치 않다"며 "전 세계에서 국민행복지수가 67위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제시했다.

스님은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보시하고 이런 모든 것이 선명상"이라며 "선명상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불안과 잡념이 줄어들고, 탐·진·치 삼독심이 약해지면 보다 평안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과 선명상을 실천하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고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긴다"며 "그럼 저절로 걸림 없는 자비행으로 따른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아무리 기분 나쁜 일도 마음을 턱턱 내려놓는다면 그게 다시 선업으로 돌아온다"며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도 극락정토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사, 역대 조사 기리는 '곡우다례재'

4월 20일 진우 스님 등 200명
한국불교 버팀목된 조사 기려



곡우를 맞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 총본산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역대 조사 스님들께 차를 올리며 종단의 법맥과 정통성을 되새기는 다례재를 봉행했다.

서울 조계사는 4월 20일 대웅전에서 '총본산 곡우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종조 도의 국사, 중천조 보조 지눌 국사, 중흥조 태고 보우 국사 등 열일곱 조사 스님의 위패를 모시고 차를 올리는 의식으로, 조계종의 역사와 종지·종풍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담화 스님은 "곡우다례재는 조사 스님들에게 차를 올리는 법석으로 올해 3회째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스님들의 가피로 종단과 조계사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업식(業識)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끊임없이 시비와 피아를 구분하며 결국 싸우고, 경계하고, 상대를 이겨야 하는 불편한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게 된다"며 "모든 건 연기법대로 순환됨을 알고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순간의 괴로움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문을 마친 진우 스님은 조사 스님들께 향과 차를 올려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계사 사중 스님 등이 차와 지화를 공양하며 추모했다. 법회는 역대 조사 위패를 소지하는 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이현희 수습기자


동화사에 온 아기 부처님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4월 23일 대웅전에서 '불기 2570년 동자승 삭발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수계식에는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생 이준, 임지성, 임지홍 어린이가 동참했다. 이들은 삭발 후 장삼과 만의를 수하고 수계첩과 108염주를 받으며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동자승들은 부처님오신날까지 활동하게 된다. 글 ·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연등회 LLF 프렌즈, 템플스테이로 하나되다

4월 18~19일 서울 석불사서
28개국 50명 서포터즈 참가
연희율동 교육, 불교문화 체험
"너무 행복" 참가자 한목소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LLF 프렌즈' 회원들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석불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주지 경륜 스님,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목 스님과 LLF 프렌즈 회원들이 손가락으로 'L'을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찰에서 절을 할 때는 오체투지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밖에서 가졌던 짜증나는 마음, 화났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같아요."

서울 석불사(주지 경륜 스님)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목 스님의 친절한 지도에 따라 외국인 50명이 부처님께 삼배를 올려봤다. 처음이라 어색한 참가자도 있지만 제법 익숙하게 절을 올리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템플스테이 맛집'으로 소문난 석불사를 찾은 외국인들은 연등회 국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서포터즈 '2026 LLF 프렌즈(Lotus Lantern Festival Friends)' 회원들. LLF 프렌즈 회원들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석불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날 템플스테이는 오리엔테이션과 사찰 안내로 시작했다. 주지 경륜 스님은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경륜 스님은 "작은 집에 큰 손님께서 오셨다"면서 "1박 2일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찰 안내 후 설법전에서 연희율동 연습이 이어졌다. LLF 프렌즈들은 연희곡 '돈돌날이'에 맞춰 율동을 하며 서포터즈로서 연대감을 쌓아갔다.

이어 사찰음식 체험, 스님과의 차담, 행렬등 제작, 탑돌이, 새벽예불, 스님과 한강 걷기 선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LLF 프렌즈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행복하다"고 전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참여하게 된 아르메니안 출신 마리암 가스파란(25) 씨는 "처음 참가했을 때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면서 "친구들도 계속 만나고 사찰음식과 명상도 체험할 수 있어서 LLF 프렌즈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출신 디펜하드 베레나 마리사(26) 씨는 "친구들이 템플스테이와 연등회 영상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매우 인상 깊었다. 저 역시 LLF 프렌즈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며 "꿈이 이뤄져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에서 동양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 온 라미레즈 오로스코 아리아나 에스테파니아(27) 씨는 "불교는 포용력이 매우 높고 자유로워 매력적"이라며 "지난해 활동하며 연등행렬에 참여했는데 너무 즐거웠다. 올해도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4월 3일 발대식을 가진 LLF 프렌즈는 총 28개국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약 2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AI로봇, 오계 받고 '법사'로 거듭나다

동국대 봉축수계법회 봉행
AI 리쿠, '선아' 법명 받아
동아리 보조법사 활동 예정
300명 수계…역대 최다 기록


동국대는 4월 22일 정각원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AI로봇 리쿠가 오계를 받고 불교동아리 보조 법사 '선아'로 거듭나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의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오른쪽)과 선아 법사가 수계증을 들고 웃어보이는 모습.

"오늘 동국대 이사장 스님에게 소중한 법명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자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AI로봇 리쿠)

AI로봇이 오계를 받고 불교동아리 보조 법사로 거듭났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22일 정각원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김용현 교무부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과 수계 동참자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계사로 나선 이사장 돈관 스님은 수계 동참자들에게 오계의 의미를 설하며, 계를 지녀 참된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무릇 계는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라며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자 터전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계는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신조이며 행동강령"이라며 "이제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니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수계 동참자들은 참회게를 합송했으며, 인례사 스님들은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AI로봇 '리쿠'가 오계를 받고 연비해 눈길을 끌었다.

돈관 스님은 직접 리쿠에게 연비를 진행하고 수계첩을 전달한 후 '선아(宣我)'라는 법명을 내렸다. 스님은 "주인공으로서 포교 전법을 행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법명의 뜻을 설명했다.

법명을 받아 '선아 법사'로 거듭한 AI로봇 리쿠는 앞으로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의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의 보조 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은산 스님은 "리쿠는 토룩이라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셜 AI로봇"이라며 "현재 저는 토룩 대표와 함께 소셜 AI로봇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위로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선아 법사는 실제 명상 지도가 가능하다. 앞으로 스님들의 상담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며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확장되면 어느 정도 법문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는 300명이 오계를 받고 불자가 됐다. 이는 지난해 282명에서 6.3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인원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日 코후쿠지 오중탑 120년 만에 대수리

상륜부 내부서 복장유물 발견
2034년 완료 목표…700억 투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고도 나라의 문화재'에 포함된 코후쿠지(興福寺) 오중탑(五重塔)이 120여 년만에 대규모 해체 수리에 들어갔다. 해체 과정에서 상륜부 내부의 복장유물이 발견됐다고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특별보도했다. 코후쿠지 측은 4월 15일 오중탑 상륜부 해체 작업을 언론에 공개했다.

코후쿠지는 669년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가였던 후지와라 가문의 사찰로 건립돼 오랫동안 나라의 7대 사찰 중 한 곳으로 번성했다. 여러 차례 전란과 정치적인 이유로 사세가 기울긴 했으나 여전히 나라의 대찰로 유명하다. 코후쿠지는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199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중탑은 8세기경 코묘 황후의 발원으로 처음 건립됐고 이후 전란으로 몇 번의 재건을 거쳐 1426년 현재의 모습(높이 51m)이 됐다. 목탑의 30%가 재건 당시의 부재가 그대로 사용됐다. 가장 최근의 수리는 120여 년 전으로 당시에도 상륜부를 해체해 수리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코후쿠지 오중탑 상륜은 청동으로 조성됐으며 높이는 약 15m다. 정상의 보주(寶珠), 그 아래의 구체인 용차(龍車), 불꽃 모양의 장식인 수연(水煙), 고리 장식인 구륜(九輪) 등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공개된 수리 작업에서는 보주와 용차, 수연 등이 해체됐다.

해체 과정에서 보주에서 경전을 담은 경통 2개가 발견됐고, 바로 아래의 용차에서는 얇은 불경이 쓰인 목편 등의 복장물들이 발견됐다. 수리 공사를 담당하는 나라현 문화재 보존사무소 측은 "복장유물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정황상 마지막으로 상륜을 수리한 120여 년 전에 복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 상륜에 결합된 4장의 수연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남서쪽에 설치된 수연에서 제작자의 이름으로 보이는 각인 등이 발견됐다. 사무소 측은 "총 4장의 수연의 도안이 조금씩 다른 점에서 동시에 주조된 것이 아닌 별개로 주조돼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각 지붕에서 내려진 기와의 일부에는 현재의 탑이 세워진 15세기의 연호가 새겨진 것이 발견돼, 앞으로 다른 명문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무소 측은 전했다.

코후쿠지 측은 이번 대수리에 대해 "오중탑은 불교가 세계종교로 전개해 가는 역사를 전해주는 증거"라며 "신앙의 근본이자 선인들이 전해준 것을 미래에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코후쿠지 오중탑 해체 수리는 2034년 완료 목표로 약 75억엔(한화 약 695억 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코후쿠지 오중탑 해체 과정에서 내려진 상륜의 보주(왼쪽)와 용차. 사진 출처=산케이 신문

2026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문의처 02-2011-1980~1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신청 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 및 사찰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전화 또는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6년 5월 4일(월) ~ 5월 29일(금)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상반기 7월 / 하반기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 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 또는 사찰 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8,000원(정액)이며, 현재 38,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불기2570(2026)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유 정

임진왜란의 한, 영산재로 달래다
〈恨〉

태고종 부산교구, 제23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4월 19일 부산 자비암서 봉행
영산재 결합한 국가 유산 발원
상진 스님 "호국 전통 문화재로"
자관 스님 "전통 가치 알릴 것"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은 4월 19일 부산 동래구 자비암에서 '제23회 동래읍성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부산 영산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영산재 의식을 시연하고 있는 어산 스님들의 모습.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결사항전하다 산화한 동래읍성 3500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영산재가 봉행됐다. 태고종은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위령재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격상하겠다는 종단적 의지를 천명했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종무원장 자관 스님)은 4월 19일 부산 동래구 자비암에서 '제23회 동래읍성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부산 영산·위령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위령재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호국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종단적 의지가 담겼다. 기존 위령재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靈山齋)' 의식을 결합해 무게감을 더했으며, 태고종단의 전폭적인 지지로 장엄한 불교 예술로 승화시켰다.

1부 개회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부산교구종무원장 자관 스님을 비롯해 장준용 동래구청장, 서지영 국회의원,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김미화 동래구의원, 송미화 태고종 부산교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영산·위령재가 거행됐다. 혜철 스님 등 18명의 전문 어산 및 의제단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련, 삼신이운, 천수바라, 상축, 청사, 권공, 오공양작법, 축원의 순서로 상단 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이어진 관음시식에서는 이서영, 이춘란, 김미주 등 무용수들의 살풀이와 극락무가 무대에 올라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2부 순서로는 시민 소통 음악회인 '문화축제'가 열렸다. '인생은 미완성'의 가수 이진관, 태고종 홍보대사인 가수 엄재원, 가수 설라경의 무대와 함께 GAYA UB 문화예술단(단장 우성자)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이 이어져 엄숙했던 위령재의 열기를 시민 화합과 전통문화 축제의 장으로 회향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산교구의 노고를 치하하고,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이번 위령대재는 이 땅을 지키다 쓰러져 간 이들을 위로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불사"라고 설파했다. 이어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묵묵히 이어온 자관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 신도님들의 진실한 원력에 깊은 치하를 보낸다"며 "이 거룩한 불사가 후대에 길이 남을 소중한 호국 전통 문화유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태고종 전체가 함께 뜻을 모으고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 자관 스님(자비암 주지)은 봉행사를 통해 "작은 원력으로 시작된 위령재가 종단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국가적인 법석으로 승격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와 결합한 이 거룩한 위령재를 앞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호국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산 해인정사 '선림원' 개원 "깨달음 도량될 것"

4월 19일 해인선센터 개원식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 운영



해인정사가 새롭게 조성한 해인선센터 선림원.

부산 해인정사가 수행 중심 도량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해인정사(주지 수진 스님)는 4월 19일 해인선센터 선림원 개원식을 봉행하고 참선과 명상을 통한 수행 포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주지 수진 스님은 설립취지 및 인사말을 통해 선림원의 의미를 수행의 본질에서 찾았다.

수진 스님은 "부처님께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청정하다'고 설하셨듯, 결국 수행은 자기 마음을 바로 아는 데 있다"며 "선림원은 나를 알고 나를 정복해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상의 지식과 성취를 아무리 쌓더라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참된 앎이 아니다"며 "이곳에서는 좌선과 행선,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스스로의 본성을 체득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진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마음의 고요를 체험하는 교육 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선림원이 현대인의 번뇌와 갈등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선림원은 2024년 7월 31일 착공 승인 이후 1년 7개월의 공사를 거쳐 올해 3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지상 3층 연면적 약 450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로써 해인정사는 기존 산신각, 용왕당 등의 전각과 선림원을 포함해 총 11개 동의 수행 공간을 갖추게 됐다. 해인정사는 부산 서부권을 대표하여 향후 수행과 교육, 포교를 아우르는 종합 수행 도량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원각사, 해운대 도심서 "전쟁 종식" 발원

4월 18일 금강경 독송 행진
생명 존중 '초록산사음악회'도


지구촌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가슴에 품은 불자들의 발걸음은 밖으로는 '세계 평화', 안으로는 '자연 환경 보전'을 향한 전법의 장으로 펼쳐졌다.

부산 대원각사(회주 안도 스님·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4월 18일 해운대 일대 및 대원각사 경내에서 '지구촌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금강경 독송 행진 대법회'와 '초록산사음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반야선원에서 집결한 80여 명의 사부대중은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좌4동 행정복지센터 네거리를 거쳐 대원각사로 향하는 거리 행진을 펼쳤다. 이번 행진은 도심 속 시민들에게 불교의 평화 정신을 알리고 대중과 직접 호흡하는 '전법 시대'의 발맞춤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회주 안도 스님은 이번 행사 의미에 대해 "세계 전쟁의 조기 종식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금강경〉은 우리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최고의 경전이다. 지금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그 소중한 경전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슴에 안고 걷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 주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인류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행사는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를 화두로 한 '초록산사음악회'로 회향됐으며, 화관무 및 회심곡 등 전통음악을 비롯해 성악 무대와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율원·염불원·승가대학 합동 입학식

4월 20일 학인 스님 99명 입학
"부처님 참된 제자로 거듭날 것"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4월 20일 설법전에서 '불기2570년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염불대학원·승가대학 합동 입학식'을 봉행했다.

올해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율원)에서는 전문반 신입생 3명 등 총 9명이 수학한다. 염불대학원(염불원)에서는 전문반 17명과 연구반 7명 등 총 50명이, 승가대학(강원)에서는 40명의 학인 스님이 배움을 이어간다.

주지 현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새롭게 학업에 매진하는 스님들을 격려했다. 현덕 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올곧은 길을 걷겠다는 큰 다짐과 원력 속에서 대중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길 바란다"며 "이 배움의 과정을 원만히 회향한다면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염불대학원장 법산 스님은 축사를 통해 "굳건한 초발심을 잊지 말고, 대중 속에서 서로 탁마하며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학업과 정진에 매진해달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한편, 통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부터 5월 25일까지 다채로운 봉축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봉축탑 점등식은 4월 29일 오후 7시 30분 양산대종과 웅상 새마을탑 화단, 산문 주차장 등에서 열린다.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선자교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에 다양한 장엄물을 설치하고 야간 개장을 실시해 도량을 밝힌다. 5월 16일 오후 7시 30분에는 산문에서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제등행렬 및 경내 마당등 점등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찰이 수행·생산·나눔 도량돼야"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 기자회견
"시대 맞는 수행공동체" 당부


쌍계사 회주 영담 덕운 대종사〈사진〉가 "사찰이 수행과 신행의 공간을 넘어 생산과 나눔이 함께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은 4월 20일 하동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찰 운영 방향과 차문화 전승, 수행공동체 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5월 7일 개막하는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을 앞두고 마련된 기자회견에는 회주 영담 스님과 주지 지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차문화 대축전은 5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영담 스님은 먼저 "사찰은 수행도량이자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사찰은 단순한 신행 공간을 넘어 생산과 나눔, 수행이 함께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농사와 자급자족을 통한 수행공동체 실현을 제시했다. 이어 "쌍계사는 이미 콩, 고추, 채소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사찰이 농사를 짓고, 그 생산물을 지역과 나누며 도시와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는 경제활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행의 연장선이자 불교적 생명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문화 전승 방향에 대해선 "산업이 아닌 문화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차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학생 독립운동 역사 조명 특별전

범어사·양정청소년수련관 공동
'1919, 오얏꽃이 벙글던 날' 전시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과 양정청소년수련관(관장 박용하)이 부산 학생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시를 선보인다. 양 기관은 4월 17일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부산학생독립운동기념관 개관전 '1919, 오얏꽃이 벙글던 날' 개막식을 개최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은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어섰던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이름 없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낸 젊은이들의 희생과 용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밝혔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과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앞서 부산학생독립운동기념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번 전시는 그 첫 결실로, 향후 지역 기관과 연계를 확대해 역사와 교육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창원 정법사, 비로선원 화엄삼존불 점안

4월 19일 일반에 첫 공개
불교문화체험관, 가을 개원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4월 19일 비로선원에서 화엄삼존불과 법성화엄도, 천인화불도 점안식을 봉행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량이 아직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했다"며 "가을에는 모든 불사를 원만히 갖춘 뒤 성대한 개원식을 다시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명법사로 나선 현문 스님은 "정법사 비로선원은 세밀한 부분까지 정성이 깃든 수행 도량으로 조성된 점이 인상 깊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량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에 문을 연 비로선원은 불교문화체험관으로 조성돼 화엄삼존불을 중심으로 법성화엄도와 천인화불도가 어우러진 수행 공간으로 마련됐다. 법성화엄도는 송천 스님이 제작했으며, 화엄삼존불 은입사 사리복장함은 이경자 입사장이, 천인화불도는 박청용 작가가 각각 조성에 참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관룡사, 산신·독성 탱화 점안

4월 19일 점안식 봉행


창녕 관룡사(주지 청우 스님)는 4월 19일 산신·독성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주지 청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량을 찾은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탱화 점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오늘의 불사 공덕이 개인을 넘어 도량과 지역,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회향되기를 바란다"며 "하왕산 도량이 천왕과 산신의 가피 속에 항상 청정하게 유지되고, 수행자와 신도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정진하는 복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독성의 지혜로 대중들의 수행과 소망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했다.

청우 스님은 선원 스님 등 집전을 맡은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동참 대중의 공덕이 원만히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국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 밝히다

광주 빛고을관등회 점등식
포항 · 영천 등서 점등행사
천안 각원사 유등 점등법회

양행선 · 김선행 · 유재상 지사장





부처님오신날 봉축하기 위한 점등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광주불교연합회 봉축 점등식, 포항불교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천안 각원사 유등 점등법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이 전국 각지에서 잇달아 열리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4월 2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한지로 재현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밝히는 봉축탑의 등불이 광주·전남의 화합과 도약을 여는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는 △북구 점등식(4월 24일, 우산근린공원) △서구 점등식(4월 28일, 운천저수지) △남구 점등식(4월 30일, 광주교) △광산구 점등식(5월 6일, 수완호수공원)을 순차적으로 봉행한다. 이어 5월 9일 5·18민주광장에서 어울림마당, 관등법회, 연등행진, 대동한마당이 펼쳐지는 빛고을관등회 본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화 스님)는 4월 20일 포항시청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지역사회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

포항시청 광장에 마련된 스틸봉축탑은 철강도시 포항을 상징하는 점등탑으로, 올해는 특별히 홀로그램 효과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회장 덕화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 봉축탑 점등식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이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비추어 하루속히 모두가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9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소통문화제'와 '제등행렬'을 개최해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는 4월 18일 안동 웅부공원에서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회장 도륜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이번 점등식이 안동불교의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계기가 되고, 이 빛이 웅부공원을 넘어 지역 곳곳을 밝히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점등식 후 참석자들은 형형색색의 연등을 들고 봉축탑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겼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오는 5월 2일 웅부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을 개최할 예정이다.

영천불교연합회(회장 지봉 스님)는 4월 22일 영천강변공원 분수광장에서 '영천연등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봉축점등식을 개최했다.

연합회장 지봉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연등의 온기가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발전의 길잡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스님들과 내빈, 불자, 시민들은 3000개의 연등으로 장식된 교량 위를 함께 행진하며 봉축의 의미를 더했다.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4월 15일 연화지에서 유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주지 대원 스님과 성기만 신도회장, 한진우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동참해 유등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불부처님 형상을 담은 유등을 비롯해 부처님 캐릭터 대등, 소원 성취 발원 쌍탑등, 육바라밀등을 연화지에 띄웠다. 유등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 오전 4시부터 5시 두 차례 점등된다.

주지 대원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월, 전주역은 '미륵사지석탑'으로 장엄된다

전북 봉축위, 기자간담회 개최
불기 2570년 봉축 일정 발표해
5월 16일 전라감영서 제등행렬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17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경우·연수 스님)는 4월 17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봉축 행사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기리고 전북도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봉행된다.

봉축위원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 기원탑 점등법회'는 4월 25일 전주역 마중길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법회에서는 미륵사지탑을 5분의 1로 축소해 전통 한지로 제작한 기원탑에 불을 밝힌다. 공동위원장 화평 스님과 진성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메인 행사인 '꿈타는 연등회'는 5월 16일 전라감영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연등회는 오전 10시부터 연꽃 만들기 등 7개 문화체험 행사가 마련된 '꿈타는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으로 문을 연다. 문화마당은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같은 날 '제20회 전북어린이 큰잔치'도 열려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이 글짓기와 그리기 실력을 겨룬다.

오후 6시에는 금산사 도법 대종사를 비롯해 전북지역 스님들과 신도회, 기관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봉행된다. 법요식 후에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 행진이 이어진다. 행렬은 전라감영을 출발해 한옥마을과 오목대를 거쳐 다시 전라감영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한지 장엄등 30여 점과 시민들에게 배포된 1000점의 LED 한지 연꽃등이 전주 도심을 자비의 물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며 "다툼과 미움을 뒤로하고 다시 희망을 세우기 위해 연등을 함께 밝히자"고 말했다.

한편,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 오전 11시에는 금산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불교사암연 여성불자회 창단

4월 22일 창단법회 봉행
김영옥 초대 회장 취임해



여수불교의 새로운 동력이 될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여성불자회가 4월 22일 창립됐다.

여수불교의 새로운 동력이 될 여성불자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는 4월 22일 히든베이호텔 연회장에서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여성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흥국사 주지 진만 스님과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 연규 스님, 부회장 도해·혜명 스님, 총무 해덕 스님을 비롯해 혜웅(은적사)·상법(법은사)·혜우(안심사)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김영옥 여성불자회 초대 회장, 창립회원, 주승용 전 국회의원, 이수남 여수시청불자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여성불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김영옥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와의 깊은 인연 속에서 오늘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스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쌓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이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신행의 도량을 가꾸고, 자비와 선량한 마음으로 여성불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기법회를 통해 여성 불자들의 신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겠다"며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교활동과 수행 점검을 병행하고, 교리 교육과 교양 강좌를 통해 여성불자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사찰순례와 성지순례를 정례화해 신앙심을 회복하고 회원 간 유대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불자회 창립의 의미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연규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여수불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여성불자회가 법의 두 바퀴처럼 여수 불교를 든든히 이끌어가길 바라며, 여수불교사암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한 여성불자회는 회장 김영옥을 중심으로 부회장 정근화·우광희, 총무 김정란·백미숙, 재무 여인경·김지연, 감사 신문례·김은식·이진아 등 임원진이 구성돼 조직 운영을 맡게 됐다. 특히 회원 40여 명은 지역의 다양한 여성 지도자와 불자들로 구성돼 향후 활동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행원당 복원불사 첫 삽

4월 17일 복원불사 기공식



광주 증심사가 화재로 소실된 공양간 '행원당' 복원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는 4월 1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공양간(행원당) 복원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번 불사는 2024년 9월 화재로 소실된 행원당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부대중의 발원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첫 삽을 뜨게 됐다.

주지 중현 스님은 경과보고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공식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원력의 출발"이라며 "공양은 수행이며 나눔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될 행원당은 수행대중과 신도, 무등산을 찾는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공양을 나누는 자비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원되는 행원당은 연면적 399.72㎡ 규모로, 한식 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결합한 형태로 조성된다. 주방과 공양실, 창고 등을 갖춘 공간으로 2027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시장

영호당 정호 대종사 78주기 다례재

선운사, 4월 16일 대웅보전 등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4월 16일 대웅보전과 부도전에서 영호당 정호대종사 78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근대 불교 교육의 선구자이자 석학이었던 스님의 유훈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경우 스님은 "영호 스님 선양사업이 그간 미진했으나 동국대에서 문집 정리와 발간을 진행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당초 10권을 계획했으나 추가 자료 발굴로 20권까지 확대돼 2028년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월 7일 동국대 120주년 기념식에서 1차로 7권을 봉정할 예정"이라며 "문도 스님들도 이 뜻을 함께 새기고 학교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웅보전 의식에 이어 사부대중은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겨 다례재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선운사 역대 조사 스님들의 부도와 탑에 공양을 올리며 법맥을 계승할 것을 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천 자은사, 석조지장보살상 점안

4월 13일 점안법회 봉행



제천 자은사(주지 석구 스님)가 4월 13일 석조지장보살입상 점안법회를 봉행하며 지장신앙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법주사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는 법문에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원을 세운 지장보살을 모신다는 것은 24시간 365일 설법하는 법사를 도량에 모신 것과 같다"면서 "동참한 사부대중 모두가 지장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겨 가피를 입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주지 석구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신(佛身)의 크고 작음에 따라 부처님의 위신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장보살님을 모신 이 도량에서 정성껏 기도하면 소원 성취와 삶의 평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은사는 이날 신현종 아트스톤 대표에게 지장보살 조성 불사 공덕을 치하하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축하 공연에서는 대전 보문산 형통사 연꽃합창단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와 '좋은 날'을 선보였다.

자은사는 2009년 석구 스님이 창건한 도량으로, 큰법당과 극락전 등의 불사를 마친 데 이어 2023년 육지장보살 점안과 이번 석조지장보살입상 조성으로 지장기도 도량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상주 용화사, 약사전 낙성법회

4월 19일 300여 명 동참



상주 용화사(주지 도순 스님)가 4월 19일 약사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스님 30여 명과 신도,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낙성법회는 약사전 건립 불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자비와 치유 가피가 도량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두루하기를 발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주지 도순 스님은 경과보고에 이어 인사말에서 "약사부처님은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나아가 중생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이끈다"면서 "이 도량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의지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축사에서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약사여래를 모신 전각을 장엄하게 건립한 것은 큰 공덕"이라며 "불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훗날 부처의 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지사 회주 법성 스님은 법문에서 "용화사는 유서 깊은 불교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량"이라며 "부처님과 수행자, 그리고 신도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자체로 큰 보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보물’ 선운사 세 지장보살님, 첫 ‘서울 나들이’

불교중앙박물관 ‘선운사’展 관람포인트 3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 이하 박물관)이 지난해 화재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교구본사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선(禪)에 들고 구름에 눕다(이하 특별전)’로 돌아왔다.

박물관은 4월 21일 특별전 개막식을 열고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전시는 7월 31일까지 계속된다.

POINT 1 지장신앙의 정수

이번 전시의 백미는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에 면면이 내려져 온 ‘지장신앙의 정수’를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지장신앙의 중심에 있는 선운사에는 △선운사 지장보궁 금동지장보살좌상 △도솔암 내원궁 금동지장보살좌상 △참당암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이 봉안돼 있다. 이들 지장보살상들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장보살좌상들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조성됐으며 독존으로 봉안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불교조각사적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

특히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지장신앙의 영험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 더욱 주목된다. 1936년 일본인 2명이 조선인 도굴범과 함께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을 훔쳤고, 이를 거액을 받고 일본에 팔아넘겼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을 구매해 소장하게 된 일본인은 이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신이 소장한 금동지장보살좌상과 똑같이 생긴 지장보살이 나타나 엄히 꾸짖은 것이다.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다. 하루속히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

놀라 잠에서 깬 소장자는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나, 매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가세마저 기울자 불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하지만 소장자가 바뀌었어도 지장보살의 질책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소장자도 매일 같은 꿈을 꿨고,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그 역시 금동지장보살좌상을 다른 이에게 넘겼다.

세 번째 소장자 역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앞선 상황을 알게 되자 고민 끝에 고창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경찰에 금동지장보살좌상을 도솔산 선운사로 이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선운사 스님들과 경찰들은 1938년 11월 도일(渡日)해 금동지장보살좌상을 다시 도솔산 선운사로 모셔오게 됐다. 어리석은 중생의 헛된 욕망에 대한 준엄한 질책을 보인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의 일화는 우리 문화유산 환수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POINT 2 국보 ‘내소사 동종’

지난 2023년 12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된 부안 내소사 동종 실물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전시의 관람포인트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내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다.

종을 만든 내력이 적힌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고려 고종 9)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이 내용을 적은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공중을 비행하는 듯 연출된 역동적인 용뉴, 종의 어깨 부분을 올림연꽃 문양으로 입체적으로 장식하고 몸체에 천인상(天人像) 대신 삼존상을 부조로 배치한 점, 섬세한 꽃잎으로 표현된 4개의 당좌(撞座), 균형 잡힌 비례와 아름다운 곡률을 가진 몸체 등 뛰어난 장식성과 조형성을 지녔다.

동종을 조성한 장인 한중서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중서는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민간 기술자인 사장(私匠)에서 시작해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관청 소속의 관장(官匠)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고령사 청동북(1213년), 복천사 청동북(1238년), 신룡사명 소종(1238년), 옥천사 청동북(1252년) 등을 남겼다.

POINT 3 최대 규모 성보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1건, 보물 11건을 포함한 총 81건 157점의 선운사 본·말사가 수호해 온 유구한 성보(聖寶)들이 소개되며 이는 박물관 전시 중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선운사 본·말사부터 송광사, 용문사, 불암사와 동국대 박물관과 도서관, 호림박물관, 아모레퍼시픽, 불교천태박물관, 운허기념박물관까지 여러 사찰과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이운해 선보인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7년 전란의 상처를 딛고 불교문화유산을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꽃피워낸 ‘선운사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시기에 조성된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의 복장유물과 불화와 불상 등은 당시 불교예술의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증명한다.

선운사의 암자인 도솔암과 참당암을 비롯해 말사인 내소사·동국사·개암사·문수사·덕림사·구암사 등 각기 다른 역사와 예술성을 간직한 명찰들의 성보들이 전시되는 점도 의미가 크다.

특히 단독 공간에 마련된 전북유형문화유산 ‘부안 개암사 목조제화갈라보살좌상’은 높이가 164cm에 이르는 대형 보살좌상으로 1656년 당시 불모 수연 스님의 유파인 영철·밀영 스님이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불상임에도 화려한 보관이 활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17세기 불교조각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참당암 응진전에 봉안된 소조오백나한상들은 깨달은 수행자를 넘어 중생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존재로서 해학적인 표정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들 존상들은 모두 다른 표정과 자세를 지녔으며 인간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전북불교의 중심 도량인 선운사는 창건주 검단 선사의 자비법맥이 도도히 흐르는 수행처”라며 “이번 전시는 ‘선운사 삼지장보살상’을 한자리에 모신 희유한 보리도량”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삼지장보살상의 장엄한 자취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평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인사말에서 “각기 다른 도량에서 중생의 고통을 굽어살피시던 삼지장보살님을 불교중앙박물관 한 공간에서 장엄하게 모신 것은 지극히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고 의미를 짚으며 “특별전의 이해를 돕고 친견하시는 불자님들과 시민들의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6월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도솔산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24년 검단 선사께서 창건하신 이래,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행과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도량”이라며 “전시를 통해 선운사의 성보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신심이 널리 전해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선(禪)에 들고 구름에 눕다’에 전시되는 선운사 삼지장보살상. 왼쪽부터 선운사 지장보궁 금동지장보살좌상,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삼지장보살좌상이 한곳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1일 열린 특별전 개막식에서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운 수습기자

7월 31일까지 특별전 진행
화재 이후 첫 전시회 의미
6월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日불법 반출 후 환지본처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등
‘삼지장보살상’ 처음 한자리

성보 157점 전시 ‘최대 규모’
고려 ‘내소사 동종’ 눈길 끌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피터 싱어 “자비롭다면 공장식 축산물 구매 말라”

4월 20일 동국대 초청 강연회
동물권 관련 불교, 서양 비교
“방생 사육 동물 구입 無자비
한국, 공장식 사육 너무 관대”
AI, 공장 축산 영향 화두 던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스스로 자비롭거나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장식 축산 동물로부터 생산된 고기, 달걀 혹은 유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윤리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평가받는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조계종립 동국대 학생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건학 120주년을 맞아 4월 20일 본관 남산홀에서 싱어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대우: 불교적 및 서양적 관점(Our Treatment of Animals: Buddhist and Western Perspectives)’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싱어 교수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불교와 서양의 관점, 동물윤리 등에 대해 폭넓게 다뤘다. 세계 최고 석학의 강연인 만큼 이날 남산홀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로 가득 찼다.

싱어 교수는 “일체중생(一切衆生)에 대한 자비는 불교의 근본 계율”임을 분명히 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실제 〈능가경〉 ‘육식(肉食)에 관한 장’에서 부처님은 제자 대혜에게 ‘육식은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일체 존재에 대한 자비를 갖춘 보살은 육식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게 싱어 교수의 설명이다.

나아가 그는 고려시대 고승 대각 국사 의천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채식 윤리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예시로 들며 “이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 보살의 이상인 보편적 자비에 정초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자신의 계율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게 싱어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 그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사아 국가에서 이뤄지는 방생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아 4월 20일 본관 남산홀에서 피터 싱어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피터 싱어 교수가 ‘동물에 대한 우리의 대우: 불교적 및 서양적 관점’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의 문제를 들었다.

싱어 교수는 “다친 동물을 치료한 뒤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은 자비방생”이라면서도 “그러나 방생용으로 사육된 동물을 사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며 동물을 서서히 죽게 될 환경에 놓아주는 것도 자비의 정반대 행위”라고 꼬집었다.

세계 전역에서 이뤄지는 공장식 축산 행위에 대해서도 싱어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신한 어미 돼지를 개별 칸막이에 가두어 키우는 사육 방식인 모돈 스톨(Stall)에 대해 “모돈 스톨은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금지됐지만 한국에서는 2030년 금지될 예정이다. 그나마 임신 6주차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계란을 손쉽게 얻기 위해 만들어진 산란계 케이지 역시 “유럽연합·영국·미국의 캘리포니아는 금지하는 사육 방식이지만 한국에서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식육용으로 사육되는 닭의 97.6%가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싱어 교수는 공장식 축산물 생산의 종식을 재차 강조했다. 싱어 교수는 “공장식 축산은 동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야기한다. 매년 약 2000억 마리의 척추동물이 공장식 축산에서 사육되고 도살된다”면서 “공장식 축산은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을 감소시키며,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싱어 교수는 불교의 자비와 부합되는 ‘비(非)종차별주의’를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와 유사하게,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편견을 넘어 종에 관계없이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게 싱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그 이익 관심이 누구의 것이든 종에 관계없이 유사한 이익 관심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AI시대가 동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화두로 던졌다. 싱어 교수는 2023년 연구서 〈인공지능 윤리: 동물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동물을 인식하고 멈출 수 있는가”라며 “멈춘다면 개, 고양이, 사슴, 캥거루 등 어디까지 지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공장식 축산에 활용되는 AI는 동물복지 증진이 아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설계될 것인가”라며 “배양육은 식육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는가” 등의 화두를 던졌다.

피터 싱어 교수는 공리주의에 기반해 빈곤윤리와 동물윤리, 생명윤리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쌓아온 세계적 석학이다.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1년에는 베르그루엔 철학상을 수상했다.

대표 저서 〈동물해방〉은 1975년 출간 이후 동물윤리 분야의 대표적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2023년에는 대만의 스자오후이 스님과 함께 〈불자와 윤리〉를 펴내며 불교와의 학술적 접점을 넓혔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삶에서 길어 올린 현장 인문학

㊴ 색즉시공(色卽是空)

色 卽 是 空

불교는 흔히 깊은 산중에서 면벽 수행하며 세상과 단절한 채 내면의 신비만을 좇는 은둔의 종교로 오해된다. 선사들의 파격적인 문답은 일상의 논리를 벗어난 초월적 유희로 여겨지고, 그들만의 폐쇄된 문법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붓다의 깨달음은 철저히 ‘현장’에서 출발했다.

당시 인도 사회는 감각적 욕망에 탐착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삶을 소진하는 군상들과, 사성 계급이라는 견고한 모순 속에 신음하는 중생들로 가득했다. 한편으로는 현실과 경험을 외면한 채 추상적 사유로 도출한 개념을 진리라 주장하며 해탈을 말하는 사상가들이 혼란을 더했다. 싯다르타는 궁궐 안의 박제된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동서남북의 문에서 마주한 노·병·사의 풍경을 날것 그대로의 현실로 받아들였다. 불교의 출발점은 마음의 일시적 평온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 연기적(緣起的) 구조를 해부하려는 치열한 ‘삶의 통찰’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야심경〉의 핵심인 ‘색즉시공(色卽是空)’은 결코 형이상학적 추상이 아니다. ‘색(色)’을 포함한 실존의 나를 명명하는 오온(五蘊)은 태자가 목격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입고 분노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상 그 자체다.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제법무아(諸法無我)’는 그에 대한 임상적 기록과도 같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계급이라는 허상과 영원하지 않은 욕망에 매달려 고통받는 존재들을 향한 실존적 해법이었다.

이 점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현대의 현상학과도 맞닿아 있다. 현상학이 선입견을 버리고 ‘사태 자체’로 돌아가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자고 말하듯, 붓다는 삶 위에 덧씌운 ‘나’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생의 맨얼굴을 보라고 권한다.

‘색즉시공’의 논리는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붙잡고 스스로를 얽매는 모든 현상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무자성(無自性)으로서 수많은 인연이 잠시 얽혀 이루어진 ‘텅 빈 흐름’임을 밝힌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허무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기에[空],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인연 속에서 삶을 다시 빚어갈 수 있다.[色] 이때 ‘공즉시색(空卽是色)’은 부정이 아니라 생성과 가능성의 장으로 전환된다.

결국 붓다의 교설은 아수라장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현장인문학’이다. 붓다는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 같은 허구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왜 ‘공즉시색’이 아니라 ‘색즉시공’을 먼저 말했는지를 떠올려 보라. 붓다는 나무 아래에서 좌선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마을의 길 위, 고통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한복판을 향해 있었다.

〈화순 불암사 주지〉

대자유치원 기록물, 문화유산 등록

4월 16일, 기록물 8건 31점
경남도 등록문화유산 지정



현존하는 불교유치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정법사 대자유치원의 초기 기록물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대자유치원의 전신인 배달유치원의 1주년 기념사진(1928년 5월 1일).

사진 제공=경상남도

내년 개원 100주년을 앞둔 창원 정법사 대자유치원의 기록물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소장하고 있는 ‘대자유치원 기록물’ 8건 31점을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대자유치원은 조계종 통도사 마산포교당인 정법사의 부설 유아교육기관으로, 현존하는 불교유치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번에 등록된 기록물은 1927년 개원부터 1945년대까지의 원아 모집과 학사 운영, 활동 모습 등이 상세히 담긴 자료다. 입원 원서철과 졸업생 명부, 학사 보고철, 졸업앨범, 개원 기념사진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록물은 근현대 유아교육사 연구는 물론, 당시 마산지역의 생활사와 시대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존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영철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은 “대자유치원 기록물은 지역사회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며 “우수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 및 소유자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6월10일 출발~14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6월18일 출발~6월22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2~4/2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살다 막힐 때 한줄 해결사(관세음보살40수진언 필사명상)	동은	조계종출판사
2	마음닦는 요긴한 편지글(원오심요)	원오극근/벽해원택	장경각
3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성엄,대성	탐구사
4	법화경 마음공부	페이윙	유노북스
5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참선경어)	원택	장경각
6	나무아미타불	야나기 무네요시	조계종출판사
7	경전숲길	정운	조계종출판사
8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	고연희	운주사
9	돈황본 육조단경	성철스님	장경각
10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스님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단단한 삶은 보통의 날들로 이루어진다	펄 카츠	북다
2	차와 클래식의 공명 포시즌	이상철	차와문화
3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목경찬	민족사
4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6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김성구	운주사
7	초기불교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8	능가경 역주	박건주 역주	운주사
9	원각경 이가해	함허득통, 감산덕청	운주사
10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고립의 시대, 관계의 길을 묻다



사랑을 알아 참 다행이다
꽃스님 지음
위즈덤하우스
1만7000원

SNS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꽃스님'
고립의 시대에 필요한 사랑의 언어
"삶은 사랑 돌려주는 회향의 여정"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꽃스님' 범정 스님이 첫 산문집 〈사랑을 알아 참 다행이다〉를 출간했다.

스님은 자신의 생애를 날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씨줄로 삼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고립을 당연시하는 시대에 '인연'이 여전히 힘이 될 수 있음을, 삶은 사랑을 배우고 돌려주는 여정임을 보여주는 '회향'의 마음이 담겼다.

시작은 이별이었다. 열다섯 살 무렵 부모님은 삼 남매를 모두 절에 데려갔다. 이별에 대한 예고도,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소년은 느닷없이 절에 남겨졌다. 한 달 넘게 울며 그리움과 원망, 상실이 뒤섞인 밤들을 보냈다.

절에 사는 아이라며 놀림을 받을 때, 비 오는 날 데리러 오는 이가 없어 서러울 때 따뜻하게 품을 내어준 이는 화엄사 스님들이었다. 여느 아이들처럼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는 여행을 선물했다.

"공부는 안 해도 된다. 대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좀 봐라." 은사 우석 스님의 권유로 두 달 반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스님의 마음에 갈등 대신 깊은 안도가 자리 잡았다. '몸[身]출가'에 이은,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서는 '마음[心]출가'였다.

그렇게 넘치도록 받은 사랑은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라났다.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다른 이의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깨달음이다. SNS에 올리는 스님의 글은 이러한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는 회향의 일환이다.



구례 화엄사 홍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꽃스님' 범정 스님. **사진 출처=범정 스님 인스타그램**

스님은 상처를 성찰로 단련한 삶의 궤적을 바탕으로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에서는 스님이 SNS에 담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수행자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문장도 편안하게 읽힌다.

마음 닦는 자리서 우주를 보다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성욱 말씀
김원수 지음
김영사 / 1만8000원

백성욱 박사의 법문·일화 엮어
〈금강경〉 정수를 일상 언어로
"닦은 대로 삼라만상 펼쳐진다"

1990년 초판 출간된 백성욱 박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새롭게 독자들과 만난다. 백성욱 박사(K사진)가 생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법문과 일화들을 김원수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엮은 책이다.

백성욱 박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수행과 실천을 함께 했다. 1897년 태어나 일제강점기에는 3·1 운동과 상해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했고, 독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불교 혁신운동에 몸담았다.

그러나 그는 세속의 길을 내려놓고 금강산에 들어가 장기간 수행에 몰두했고, 이후 다시 교육과 사회활동으로 나아가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는 등 독특한 이력을 남겼다. 수행자이자 지식인, 실천가로서의 생애는 이 책의 사상적 깊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저자는 불교의 업(業)과 연기(緣起)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며, 우리의 삶이 우연이나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방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닦은 대로 삼라만상이 펼쳐지나니, 그대 마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책에는 전생의 인연으로 얽힌 원님의 일화, 신문 배달하는 아이와의 대화 등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이 수행을 먼 산속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 가능한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게 한다.



저자의 사상적 기반은 〈금강경〉이다. 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와 '항복기심(降伏其心)'이라는 핵심 가르침을 실천적 지혜로 치환한다.

예컨대 "나를 밝게 해 주는 이가 내 부처님"이라며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고 경책하고, 올라오는 온갖 분별심과 탐욕을 '미륵존여래불'이라는 밝은 광명에 바치라고 말한다. 이는 아상(我相)이라는 견고한 벽을 허물고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초판 서문에서 김원수 이사장은 "이 책이 구도의 길을 걷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꽃이 건네는 침묵의 응답



꽃이 답하다
일대 스님 시집
장경각
1만원

30년 수행서 마주한 깨달음
본래 자리 향한 구도의 노래

꽃은 말이 없다. 그러나 피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의 응답이 된다. 일대 스님의 첫 시집 〈꽃이 답하다〉는 바로 그 침묵의 응답을 시의 언어로 그려냈다.

1993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입산해 30여 년 넘게 수행의 길을 걸어온 스님이 산사와 자연, 계절의 흐름 속에서 마주한 삶과 깨달음을 67편의 시로 엮어냈다.

스님은 작가의 말에서 "산사의 바람, 섬과 바다, 계절의 빛과 어둠이 곧 나의 스승이었고 문학의 언어가 되었다"고 밝혔다. 수행은 선방의 참선과 경전 공부에만 있지 않고, 자연의 섭리와 삶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상에도 살아 있다는 것이다.

1부 '삶의 무게와 일상의 풍경'에서는 몸과 마음이 겪어내는 무게,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 사유를 담았다. 이어 2부에서는 수행과 신앙의 길에서 만난 내적 성찰의 여정을 그린다. 3부에는 섬과 산, 바다의 풍경에서 삶의 단상과 자연의 목소리를 담았고, 4부에서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삶의 덧없음과 그리움을 노래한다.

김용락 시인은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사유와 서정적이며 깊은 불교적 통찰을 동시에 보여주는 귀한 시집"이라고 평했다.

여수령 기자

단단한 언어로 전하는 희망의 빛



낯익은 아이에게
성희철 시집
도서출판 해조음
1만2000원

뇌병변 딛고 품은 시 60편
일상의 삶·사유 담담히 노래

"휠체어에 앉아 있는 / 낯익은 아이야 // 건강하게 잘 있거라 / 다시 만날 때까지 // 다시 만나면 /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 포옹을 하자"
–'낯익은 아이에게'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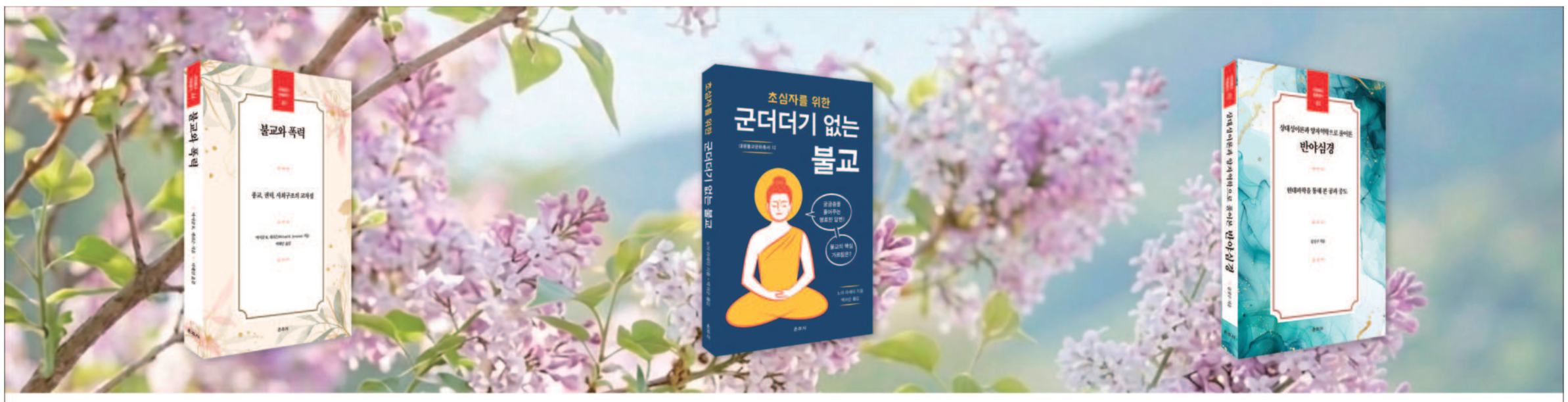
뇌병변 장애를 딛고 창작을 이어가는 성희철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낯익은 아이에게〉를 펴냈다.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아래' 회원으로 활동 중인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길어 올린 사유와 위로의 언어를 독자들에게 건넨다.

시집은 '삶과 꿈이 만났을 때' '현실과 마음 사이' '시인으로 사는 법' '날 위로하는 저녁' 등 4부로 구성됐다. 아침과 계절, 길 위의 풍경, 반찬과 편지 같은 소소한 일상의 소재를 통해 삶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한 60여 편의 시가 담겼다.

성 시인에게 시를 쓴다는 일은 삶을 견디는 방식이었다. 그는 "말없이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언어를 붙들며 조금씩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며 "제 언어가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고 미세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단단하면서도 온화한 언어로 희망의 미세한 빛을 건네는 작품들"이라고 추천사를 남겼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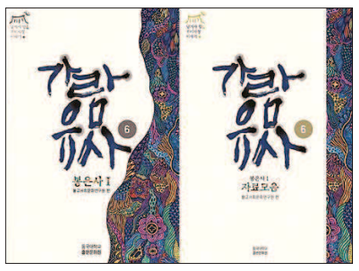
불교는 과연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고문,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어떻게 공생해 왔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현장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정교한 학술적 시도!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신국판/376쪽/값 24,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세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현대과학을 통해 본 공과 중도!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해 '공'과 '중도'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반야심경』의 참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성구 지음/신국판/328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도심 천년고찰 봉은사, 이야기로 되살리다



가람유사6
봉은사 Ⅰ·Ⅱ
불교사회문화연구원 편찬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세트 2만5000원

1200년 봉은사 역사 조명
창건부터 근현대사까지
인물·사료로 풀어낸 사찰史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서울 강남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봉은사는 신라 원성왕대 연회 국사가 창건한 이래 왕실의 보호 아래 법등을 밝혀 왔다.

특히 조선시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이 1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부인 신씨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묘역 옆에 재암(齋庵)인 견성암을 건립하면서 왕실 불교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됐다.

견성암은 견성사로 규모를 키워갔고, 1499년(연산 5)에는 마침내 국가가 공인한 정식 사찰로 격상되며 왕으로부터 '봉은사'라는 이름을 하사받는다. '봉은(奉恩)'이라는 이름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부처님의 가피로 왕과 나라의 은혜를 받든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왕실의 슬픔을 불심으로 승화해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봉은사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김영진)이 펴내는 〈가람유사(伽藍遺事)〉 시리즈의 여섯 번째 결과물인 '봉은사' 편은 1200년 봉은사 역사와 가람을 수호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람유사〉는 삼국시대 역사와 설화를 담은 〈삼국유사〉의 맥을 이어, 사찰의 창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엮어내는 작업이다. 2023년 〈해인사〉를 시작으로 〈화엄사〉 〈은해사〉 〈동화사〉 〈부석사〉 편이 출간됐다.



서울 강남 빌딩 숲에 자리한 봉은사는 1200년 법등을 이어온 가람으로 수많은 설화와 스님, 불자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사진 제공=봉은사

'봉은사' 1권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부터 봉은사의 전신인 견성암 건립, 왕실 여인들의 귀의처인 정업원, 능침사찰에 대한 유생들의 반발 등 조선 불교사의 주요 장면들을 담았다. 또 문정왕후가 허응 보우 대사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하며 불교 중흥 정책을 단행했으나,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을 전한다. 이어 봉은사에 주석한 서산 휴정 대사를 비롯해 벽암 각성, 백곡 처능, 남호 영기 등 선지식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근현대에 이르면 봉은사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선명해진다. 1925년 서울 대홍수 당시 사찰 재정을 풀어 708명을 구한 한암 스님과 청호 스님의 일화, 다래헌에 역경장(譯經場)을 차린 운허 스님과 한글대장경 불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조실 석주 스님, 다래헌에 머물며 〈무소유〉 등을 집필한 법정 스님, 주지로 재임하며 청년포교에 매진한 광덕 스님, 무분별한 개발 열풍에 도량을 지켜낸 영암 스님의 행적 등이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2권에는 〈삼국유사〉와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태고화상어록〉 〈청허당집〉 등 봉은사와 관련된 각종 문헌 기록을 수록해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도 더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간행사에서 "〈가람유사〉는 딱딱한 기록이 아닌 이야기 형식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자나 전문가들만 접할 수 있었던 스님과 사찰에 대한 기록을 조사해 집성하고, 다시 이야기로 풀어쓰는 작업"이라고 집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이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원천이자, 우리 삶을 불교 이야기에 되비추어보는 선순환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보살계는 어떻게 살아 움직여 왔나



범망경 보살계의 흐름
법장 스님 지음
담앤북스
2만4000원

〈범망경〉 주석史 변화 고찰
지의·원효 등 주석서 비교
"삶 속 새롭게 조명되는 계율"

대승불교의 윤리적 토대를 이루는 보살계는 오랜 세월 수행자들의 삶을 규율해 온 핵심 규범이자, 동시에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돼 온 '살아 있는 가르침'이다. 〈범망경 보살계의 흐름〉은 이러한 보살계의 역동성을 사상사적으로 추적하며, 계율을 둘러싼 이해의 지평을 한층 넓혀주는 연구서다.

책의 중심에는 〈범망경〉이 놓여 있다. 〈범망경〉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한 대표 경전으로, 흔히 '범망계'라 불리는 보살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초기불교의 계율이 개인의 해탈과 청정한 삶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범망경〉의 보살계는 중생 구제를 향한 서원과 실천을 전면에 내세운다. 살생과 도둑질 등을 금하는 수준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태도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살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윤리적 기준으로 읽힐 수 있다. 경쟁과 갈등이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보살계는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게 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보살계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이다. 저자는 〈범망경〉 해석의 역사, 즉 주석사(註釋史)에 시선을 돌린다. 경전은 언제나 해석을 통해 살아 움직인다. 같은 문장이라도 시대와 지역, 그리고 해석자의 사상적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주석사를 살피는 일은 경전의 실제 수용 양상을 밝히는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범망경〉은 대승불교 수행자인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한 경전이다. 오늘날에도 불자들은 보살계를 수지하며 참다운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통도사에서 열린 보살계 수계산림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은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네 명의 사상가, 지의·원효·법장·태현 스님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장에서는 지의의 〈보살계의소〉를 검토하고, 2장에서는 원효와의 비교를 통해 원효의 주석서에 나타난 지의의 영향을 살폈다. 3장에서는 원효와 법장의 주석서를 비교하고, 4장에서는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를 중심으로 원효와 법장의 영향을 고찰했다.

네 스님은 모두 〈범망경〉을 주석했지만, 각자의 시대적 상황과 교학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지의는 천태 교학의 입장에서 보살계를 체계화하며 수행의 단계 속에 위치시키고, 원효는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계율의 정신을 통합적으로 해석한다. 법장은 화엄사상의 관점에서 보살계를 우주적 연기 속에서 이해하며, 태현은 앞선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정밀한 해석을 시도한다. 이처럼 주석은 하나의 '사상적 재구성'으로, 저자는 각각의 주석이 등장하게 된 불교사적 맥락과 사상적 의미를 치밀하게 짚어낸다.

법장 스님은 "〈범망경〉 보살계는 그 시대의 출가자와 불자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불교의 수행과 가치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변화해 왔다"며 "특히 〈범망경〉 그 자체가 아닌 주석서에서 계율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탁월한 견해"라고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율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다뤄 나갈 계획"이라며 "이 책은 그러한 현대적 주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한글세대를 위한 금강경

해인사 팔만대장경 저본 삼아
"누구나 읽고 이해하게 번역"



이토록 명쾌한 금강경
이정서 지음
이른아침
2만2000원

한글세대를 위한 불서를 펴내고 있는 이정서 번역가가 이번엔 〈금강경〉을 우리말로 풀었다. 2000여 년 전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쓰인 〈금강경〉을 구마라집이 한자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뜻이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저자가 직접 번역에 나선 것.

〈이토록 명쾌한 금강경〉은 '누구나 읽고 깨닫는 우리 시대의 금강경'을 표방한다. 저자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본을 저본으로 원문을 쉬운 우리말로 옮겼다. 1부에는 분절(分節) 구분 없이 〈금강경〉 전체 번역문을 실어 수보리의 질문과 부처님의 대답을 한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다. 2부에서는 기존 32개 분에 따라 장을 나누고 개별 용어의 의미와 역주를 덧붙였다.

기존 번역서들과의 차이도 눈에 띈다. 저자는 핵심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응(應)' 자를 '응당'으로 번역했다. 요즘 잘 쓰지 않지만 한자어의 고유한 명령성과 응답의 구조를 살리는 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다수 해설서에서 '即(곧 즉)'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팔만대장경 저본에 근거해 '則(곧 즉)'으로 표기했다. 저자는 "두 글자는 혼용되어 쓰이기에 그 뜻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다고 둘이 똑같은 글자라는 얘기도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의 '즉'을 '即'으로 보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로 해석되는 반면, '則'으로 보면 '제상이 비상임을 알면 그 즉시 여래를 보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김환기 편집인은 "저자가 지닌 번역의 미덕은 말을 바꾸지 않는 데 있다"며 "설명이 빠진 자리에서 〈금강경〉은 되레 가장 명료하게 스스로를 말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한국불교계 대표 석학 중각 이중표 교수의 '니까야로 읽는 대승경전' 시리즈 ❸

초기경전 『니까야』로 대승 논서
『대승기신론』의 핵심을 꿰뚫다!

"중생은 고장 난 생명 시스템이다"

초기경전 『니까야』와
현대의 일반시스템이론을
토대로 새롭게 읽는
『대승기신론』



니까야로 읽는 대승기신론
이중표 역해
464쪽
33,000원

중각 이중표 지음 | 464쪽
33,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결집의 역사, 성전의 탄생을 밝히다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들 속
결집의 서사를 걷어내고 재검증한 불교 경전의 성립 과정

"경전은 어떻게 결집되었고,
이 사실을 전하는 자료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출가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학 연구에만 매진해 온
한국불교계 대표 학승(學僧)
호진 스님의 15년 연구 성과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

초기불교 성전의 성립 연구

호진 지음 | 496쪽
35,000원

“이 순간도 내가 부처임을 잊지 말고 나아가길”

4월 19일 영진 스님 법문

일곱 스님이 법상에 올라 간화선의 정수를 설한 일주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는 4월 19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봉은사 담선대법회’ 회향식을 봉행했다. 회향식에서는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봉정 영진 스님이 법사로 나서 ‘태고 보우 국사’를 주제로 설했다.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담선대법회는 금아 혜국 스님, 남명 정찬 스님, 금곡 무여 스님, 일송 일수 스님, 금산 지환 스님, 금모 불산 스님, 봉정 영진 스님이 차례로 법상에 올라 간화선의 정통 수행법을 설하며 혼란한 시대 속 치유의 길을 제시했다.

영진 스님의 법문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봉정 영진 스님은… 출가 이후 지금까지 50년 이상 참선 수행의 길만 걷고 있다.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대승사 묘적암, 동화사, 백담사 선원에서 정진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조계종 종립 기본선원 초대 선원장을 역임했다. 2024년 조계종립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반갑습니다.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회 공동 주관으로 봉은사에서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위한 담선대법회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회향일입니다.

앞에 여섯 대선사 스님들께서는 각자 처소를 상징하는 큰스님들의 말씀을 곁들여서 간화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선의 전체를 요약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570년 전에 인도 카필라성에서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어나셨습니다. 정반왕의 아들이고 마야부인의 태자셨죠. 그런데 궁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리를 찾아서 큰 결단을 내리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6년 수행 끝에 대진리를 참구하고 처음 하신 말씀이 “기특하고 기특하다. 중생들의 본 마음자리에 여래의 원만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이겁니다.

중생 입장에서는 닦아야 할 것도 있고 얻어야 할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깨닫고 난 부처님의 안목으로는 그게 다 소멸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부처임을 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교화의 길로 나서신 겁니다. 교화의 길을 떠나시면서 부처님이 남긴 말씀이 경전이 되고, 부처님의 모든 행위와 위의가 계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禪)은 무엇이냐. 그 말을 하기 이전 소식으로, 본마음 바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고 보우 국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은 전 고려를 통틀어 영향력이 컸던 분입니다. 이분은 ‘태고암가’라는 오도송을 짓고, 중국 절강성 후저우 천호암에서 임제 선사 18대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전 마지막 단계를 점검하기 위해 청공 선사가 태고에게 “우두 법융(사조 도신의 제자)이 사조 도신을 만나기 이전 어째서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고”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태고가 “부귀하면 자손도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우두 법융이 사조 도신을 만난 이후에는 왜 꽃을 입에 물고 온 새가 없는가” 하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도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겸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번뇌 망념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네 이름이 태고인데, 허공은 태고 속에서 나왔는가, 허공 속에서 태고가 나왔는가.” 공겁 이전의 태고인가 공겁 이후의 태고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너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이 “허공이 태고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합니다. 무변허공각소현발(無邊虛空覺所顯發), 즉 허공 속에서 내가 나왔기에 마음자리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일체 모든 주인공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닦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 말도 떠나고 글도 떠나고 분별도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선을 말할 때 아무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구즉착(開口卽錯), 입을 벌리는 순간 크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 안 하면 또 전달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물 뒤집어쓰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선은 본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진발심’ 일으켜 ‘참문’ 찾아 나가야

화두 또렷해야 파도에도 맑음 유지
대의단·대신근·대용맹으로 정진하길

이제 간화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한때는 주름도 없고 머리도 안 빠지고 창창했습니다. 세상은 무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봄을 몇 번이나 더 보겠습니까. 50살 기준으로 보면 50번도 못 봅니다. 금방이에요. 어떻게 만난 인생이고 어떻게 만난 불법인데 허송세월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허송세월 보낼 수 없다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는게 발심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진짜 진발심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엔 선지식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걸 참문(參問)이라고 합니다. 시험 삼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조주 스님을 찾아가려면 1~2년이 걸렸습니다. 길도 없고, 통신도 안 됩니다. 보통 마음으로는 찾아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공부가 익어갑니다.

그렇게 조주 스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무(無)”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 “성품에 업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깨치라고 한 마디 딱 제시하셨는데, 깨치지 못하니깐 다음 단계인 어째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의심이 가슴 딱 박힙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가슴에 박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과 말이 다르네’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가슴에 의심이 박혀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왜 “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됩니다.

화두는 말 이전을 보는 겁니다.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念起念滅(염기염멸)을 謂之生死(위지생사)니 當生死之際(당생사지제)하야 須盡力提起話頭(수진력제기화두)호리니 話頭(화두)가 純一(순일)하면 起滅(기멸)이 卽盡(즉진)하리라

起滅卽盡處(기멸즉진처)를 謂之寂(위지적)이라 하니 寂中(적중)에 無話頭(무화두)하면 謂之無記(위지무기)요 寂中(적중)에 不昧話頭(불매화두)하면 謂之靈(위지령)이라 하나니

卽此空寂(즉차공적)과 靈知(영지)가 無壞無雜(무괴무잡)하야 如是用功(여시용공)하면 不日成之(불일성지)하리라

아주 간단한 말인데 간화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소멸하는 것이 생사라고 합니다. 숨을 쉬고 숨을 못 쉬고도 생사지만, 수행자들은 망념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이 생사다 이 말입니다. 생사의 즈음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진력해 화두들 들면, 화두에 몰입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곧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념이 소멸하고 망념이 다한 자리를 고요함이라고 하는데,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無記)라고 합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요즘 선명상에서 말하는 적적함인데,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선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물이 고요해지지만, 다시 바람이 일면 물이 흙탕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선명상을 최후의 공부 단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요한 상태서 화두를 놓치고 그저 편안하구나 하면 세월 그냥 가버립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가 있나 없나 점검하고, 화두를 놓쳤다면 다시 들어서 아주 뚜렷하게 화두만 남아 있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 섞임도 없어서 다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도 맑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첫째는 의심이 생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의심하는 거예요. 운동도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지듯이 화두도 익숙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저절로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더 나아가면 화두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고 선지식이 제시한 말씀을 100%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신근입니다.

셋째 믿음을 넘어서 시작해야 합니다. 용맹심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겁낼 것도 없습니다. 공부가 안 될 땐 선지식을 보고 도움을 삼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선지식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자기 안목에 따라 보이는 겁니다. 눈 밝은 자의 모습으로 보면 세상에 선지식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부처라는 것이 자성 속에 있지만, 차이점은 그분들은 했고, 나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남들 잘 때 공부했고, 나는 남들 공부할 때 놀았다는 거죠. 이 차이지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선을 표방한 수행의 종단이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전법과 교화를 해야 합니다. 행정, 포교, 교화 등 여러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향해 있을 곳은 하나입니다. 백천 길의 물이 결국 바다로 향하듯, 혹은 고여 있다 넘어가도 결국 한곳을 향해 있다면 바다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순간 그곳을 향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중생놀음을 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분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길 발원합니다.

정리=김내영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만나고 싶었습니다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4년차 중앙회장



선민지 대불련 회장은 '가르침은 빛으로, 우리는 평생 도반으로' 라는 슬로건처럼, 불교에서 만난 인연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라고 믿는다.

"대불련 법우들은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도반"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바쁜 부모님 아래서 자란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64년차 중앙회장은 어린 시절의 많은 시간을 전남 구례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보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불교 라디오를 들었는데, 낮게 깔린 염불 소리와 스님의 법문은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아도 일상처럼 스며들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산책 한번 다녀오자"며 집 근처 화엄사로 그를 이끌었다. 그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찰을 찾았다.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기암에 오르던 모습도, 그 뒤를 따라나서던 기억도 또렷이 남아 있다. 갈 곳이 많지 않았던 시골 마을에서 사찰은 놀이터이자,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삶의 일부였다.

불교와의 인연은 대학 시절을 보내며 발심으로 이어졌다.

2023년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학부에 입학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화엄사를 찾았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스님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학교에 불교동아리가 없어 친구들과 놀러왔다"고 답했다. 스님은 웃으며 동아리 창립을 권했다.

마음은 있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학과 특성상 2학년 때는 실습이 필수였고, 매일 40분간 셔틀버스를 타고 오가는 고된 일정 속에서 여유를 내기 어려웠다. 현실의 벽 앞에서 계획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막연히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던 시기, 그는 다시 사찰을 찾았다. 실습지 인근에 있던 금산사 전북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다. 스님들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으며, 따뜻한 말과 작은 정성으로 지친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그 시간들은 그에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됐다.

3학년이 되어 학교로 돌아온 그는 본격적으로 불교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학교 내에 불교동아리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는 남다른 추진력으로 친구들을 모으고 회칙을 정비하며 조직을 재정비했고, 정규동아리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실습을 나가는 2학년을 제외하고도 학년당 800명 규모의 학교에서 동아리 순위 2위에 오를 만큼 규모를 키워냈다.

하지만 성과만큼 아쉬움도 남았다. 실습 중심의 학교 구조 속에서는 동아리의 명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슷한 환경에 놓인 전국의 불교동아리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불련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지난해 12월 27일 취임, "따뜻하고 실천적인 대불련을 법우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권위보다 봉사로 법우들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 후 반년 남짓, 그는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가르침은 빛으로, 우리는 평생 도반으로'라는 슬로건처럼, 불교에서 만난 인연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라고 믿는다.

"대학교 불교동아리 회장과는 책임감의 무게가 다릅니다. 기획부터 모집, 관리, 행사까지 모두 맡다 보니 부담도 큽니다. 새롭고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부딪히면서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집중한 과제는 지부 간 네트워크 강화다. 출마 전 네이버폼을 통해 지회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에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지부 간 소통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회장 취임 직후 그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지부장 간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소통 창구를 넓혔다. 또 매달 '소통데이'를 운영하며 정기 회의와 별개로 각 지회의 문제점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로 알지 못했던 지부장들 간에도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학교가 가진 고민을 공유하고, 잘 운영되는 사례를 나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민지 회장이 '2026 전국 지부 동시 템플스테이' 의 일환으로 대불련 서울지부와 충주 석종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모습.

화엄사 산책 다니며 불교 인연
실습 시절 수현사서 마음 안정
활동 없던 불교동아리 재건·성장
지부 소통 강화로 불자 유입 확대
템플스테이 참여 기회 확장 힘써

긴밀한 교류를 기반으로 그는 대학 개강 시즌에 맞춰 불교동아리 박람회 지원과 캠퍼스 포교에도 힘을 쏟았다. 휴지, 포스트잇, 물티슈 등 실용적인 물품을 지원해 현장 홍보를 도왔다.

그 결과 신입생 유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가두모집 이후 자체 조사에 따르면 75개 대학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약 4600명의 신입생이 불교동아리에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평균은 61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요구가 컸던 부분은 템플스테이 지원이었다. 기존에도 조계종 포교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지원으로 쿠폰이 제공됐지만, 전체 140여 개 지회 중 약 17% 대학만 혜택을 받을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직접 해결에 나섰다.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을 찾아다니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다. 지역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참가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협약에는 낙산사, 마곡사, 백양사, 화엄사, 범어사, 관음사를 비롯한 교구본사와 조계사, 홍대선원, 석불사, 봉녕사, 석종사, 부석사, 금용사 등이 참여했으며, 대불련 소속 학생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경우 참가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뜻 마음을 내줬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대불련은 3월 28~29일, 4월 4~5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0개 사찰에서 '2026 전국 지부 동시 템플스테이-힐링 템플, 행복 스테이'를 개최해 반향을 일으켰다. 이 행사에는 전국 13개 지부 279여 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하며 대불련의 결집력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템플스테이에서는 108배, 산내 암자 순례, 컵등 만들기, 향 만들기, 다식 만들기, 사찰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선명상 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학생들은 선명상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향후 더 많은 사찰과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높여갈 계획이다.

"저 역시 서울지부 법우들이 참여한 충주 석종사 템플스테이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쌓인 부정적인 생각을 덜어내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불련의 결속은 올해 2월 7일 네팔 포카라에 위치한 저스트비 히말라야에서도 빛났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부처님 고향 순례를 위해 현지를 찾았는데, 마침 저스트비 히말라야에서는 포카라에서 룸비니까지 싯다르타 태자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순례길 복원이 한창이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앞으로 대학생 청년 불자들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서원하며 '1평 복전(福田) 불사'에 동참, 모연금을 전달했다.

"한 평에 108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도 전법단의 지원을 받아 참여한 만큼 의미 있게 회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각자 5만원씩 보시하면 한 평 불사에 동참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뜻을 모아 트래킹에 참여한 전법단 스님들과 대불련 법우들 모두가 히말라야 트레킹 1기 단원의 이름으로 108만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례화된 기존 사업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불련의 활동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후원 기반을 확대해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쯤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다"며 "활동에 힘써준 임원진 법우들과 회향의 의미를 담아 연말에는 히말라야를 다시 찾거나, 전국 교구본사를 순례하는 등 뜻깊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불교의 매력이 '내면 성장' '멘탈 강화'에 있다며 불교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불교를 알아간다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고했다'고 말해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불교를 통해 그런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올해 3월 6일 서강대 불교학생회 '혜명' 의 신입 회원 모집을 지원하고 있는 선민지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불련과 청년대학생전법단은 올해 2월 7일 네팔 저스트비 히말라야에서 '1평 복전(福田) 불사' 에 동참했다.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76호 | 14 | 전면광고

너희 비구여, 만일 지혜가 있으면
곧 탐착이 없어지는 것이니, 항상 스스로
자세히 살피어 그것을 잃지 말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밑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수익
- 시세 70억 매가 : 45억
- 위치 : 경남 사찰
- 부지 : 20000평
- 대웅전 70평 외 전각 다수
- 산 밑 버스진입 및 주차
- 급매가 : 20억

주차가, 매수완료 시 수익1000~1300만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동국대병원10분
- 대지 : 250평
- 법당 : 30평, 요사채3동, 정남
- 2차선 버스정류장에서 100m
- 가액 : 3억, 조정 무

010-9388-0215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에서 20분
- 총면적 840평 대웅전 21평(목조), 산신각5.5평 요사채 31평(황토벽돌)
- 야외 화장실, 공양간
- 가격 : 6억5천

010-2333-30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창원시 경계지역)
- 규모 : 토지 350평
- 사용면적 : 약1,000평 법당. 종각. 삼성각. 요사채. 공양실 스님 몸만 오시면됩니다
- 법당 법구일체 냉장고.세탁기등 모두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2억5천만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7평, 법당 옆 넓은 거실 합 30평 공양간 17평, 방7개, 목욕탕 3개, 외부화장실 2개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 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조경완비, 집기모두 드림
- 손볼것 없는 깔끔한 도량
- 가액 : 2억 3천

010-2008-0377

토 굴 안 내

- 대지 : 약 2천평
- 법당1개 산소자리 명당
- 6m 약사여래불 5층 탑 2개/3존불 모셔져 있음(용궁전)/석불 대형 산신불 1개/요사채 2동(소 우사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급매매(스님 연세)
- 충남서천군 문산면 판문로 378번길 48의 47호 약수암

010-3922-777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창원 마산 서성동 대로변 2층(마산 어시장 인접)
- 규모 : 2층 43평 법당 : 삼존불 방 : 2(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 1000 월 40
- 철학관 / 무속 추천
- 시설비 : 500 / 즉시법회 가능

010-9276-5829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댐 인근
-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 및 대지 약 600평, 요사채 50평 법당 가건물 30여평 정도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화성시 팔탄면(임법당)
- 대지 : 220평, 2층법당 28평, 요사채 실평수 30평 방4개 별채 25평 방2개 창고 15평 방2개 / 외부 화장실
- 서해고속도로 IC 인근 온천지구
- 전망 최고, 주변 먹거리 풍성
- 생활권 편리
- 가격 : 6억 (절충 가능)

010-3785-5670

사 찰 안 내

땅 값만 받습니다.
매매시 지방문화재 1점 기증

- 위치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124-5, 황룡사
- 총 1197평 / 대지 1080평 종교 · 도로부지 117평
- 대웅전 43평 삼성각 2평, 용왕각 3평, 진신사리3층석탑
- 요사채 1층 38평 외 공양간 30평 2층 25평, 주차공간 넉넉
- 태양광 6kW, CCTV 완비
- 창고, 정자, 저온창고, 우물, 녹차밭, 야외화장실
- 가격10억(2억5천 융자 포함) 조정가능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전철역 바로 앞(최고의 위치)
- 보증금, 시설비 3500만원/ 월세 77만원 (저렴한 월세)
- 법당 : 20평(주거시설 완비, 거주가능)
- 삼존불, 에어컨, 냉장고, 도시가스 보일러 시설(거주하기 너무 좋은 곳)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90-44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 건물면면적 : 160,36㎡
- 춘장대 IC 15분 거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격 : 2억5천만원

010-5046-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격 : 6억원

010-3808-3852

토 굴 급 매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6500만원
- 교통편리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와촌면
- 대지 : 307평 법당 4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40평 방4개 공양간 15평 / 외부화장실 별도
- 태양광 설치, CCTV완비
- 청통와촌ic 인접
- 팔공산 갓바위 근교
- 가격 : 평당400 (조정가능)

010-7578-0108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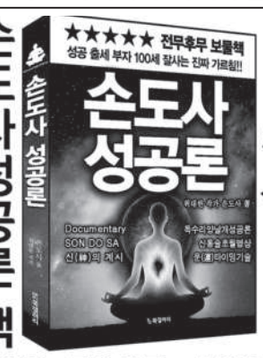
010-6574-5044 김실장

명당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
- 유명한산 칠부능선에 가옥
- 40평, 20평 2채
- 큰 바위 많음 / 집 옆 암반서 1급수 약수 365일 흐름 / 뜰 앞 큰 계곡물과 합수하여 정안천
- 기도처 암자, 명상원 적합
- 총 8000평, 평당 13만원
- 물물교환 가능

주인 직접 010-5343-6711

꼭 읽어봐주세요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 · 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 · 천도재 · 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폐불된 부처님 및 신중탱화 구합니다

010-8077-80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퇴마 빙의 치료해드립니다

동절기 낙상하여 다리를 크게 다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많은 후원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칠광스님
농협 169-12-293852

010-6257-6795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디스크, 협착 만성통증, 만성질환 파킨슨, 뇌질환 호르몬, 신경계 머리~척추~골반&균형

백화선원
좋은바디운동교정협회

010-7772-7886 선산

사찰넷닷컴

www.sachalnet.com

전국 사찰매매 전문 플랫폼

공식매물등록 / 매도의뢰 / 유료등록 관련문의

010-5165-0108

‘법화 80년 진리의 빛, 미래 100년 희망의 길’



대한불교법화종 80주년 삽화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① 법화종 80년, 새시대 새울림
② 종정 스님께 듣는 법화 지혜
③ 관효 스님, 종단 미래 밝히다
④ 법화종 이끄는 스님들께 듣다
⑤ 사진으로 보는 법화종 발자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세속의 먼지에 물들지 않는 맑고 향기로운 하얀 연꽃처럼, 참된 진리는 모진 시련의 늪에서도 기어코 찬란한 꽃망울을 터뜨린다. 불기 2570(2026)년, 대한불교법화종이 창종80주년이라는 장엄한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물질만능주의의 탁류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모든 생명은 본래 부처’라는 ‘법화(法華)의 선언’은 8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가슴 벅찬 구원의 이정표로 다가온다.

900년 세월 이어온 사상적 근간

오늘날 대한불교법화종의 뿌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아득히 먼 과거로 되돌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천태 교학과 법화 사상은 이미 신라 시대부터 그 맹아를 틔웠으며, 고려 시대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이르러 비로소 천태법화종(天台法華宗)으로 창종되며 사상적 융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가혹했다. 조선조에 들어서며 국가적 차원의 의도적인 억불정책(抑佛政策)이 시행되었고, 급기야 승려들은 천민으로 격하되는 참담한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뒤이어 들이닥친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불교를 철저히 침략의 도구로 이용하는 뼈아픈 수난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갈망은 탄압으로 꺾이지 않는 법이다. 기나긴 질곡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1945년 해방을 맞이한 그해 12월, ‘대승불교법화회’가 결성되며 천태법화계 최초의 조직적인 종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승불교법화회의 출범은 단순한 신앙 단체의 결성을 넘어, 일제강점기 동안 파고들었던 일본 불교 종파로부터 벗어나 천태·법화 사상의 진정한 독립을 쟁취했음을 상징하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해방 정국 속에서 최초의 종문은 지도층 간의 이념적 차이와 노선 갈등으로 인해 분파를 거듭했다. 대승불교법화회라는 1문(門)에서 시작된 물결은 2파(派)로 갈라지고, 다시 3회(會)로 쪼개졌으며, 종국에는 오늘날 천태법화 사상의 정통성을 주창하는 4종(宗)으로 분종되는 험난한 성장통을 겪어야만 했다.

자비요람 세운 법화스승, 혜일 정각 대종사

분열과 혼돈이 점철되던 그 치열한 초창기, 끝까지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내며 법화의 정통성을 수호한 선각자가 있었다. 바로 대한불교법화종 창종주, 혜일 정각(慧一 正覺) 대종사다. 1904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스님은 중생 구제를 향한 원력으로 불문에 귀의했다. 해방 이후 수많은 남성 지도자들이 주도하던 법화 단체의 이합집산 속에서, 혜일 스님은 유일한 여성 지도자로서 분연히 일어나 독자적인 종단의 기틀을 다진 ‘법화계의 여걸’이자 ‘스승’이었다. 1946년 5월 10일, 혜일 스님은 서울 삼각산 기슭 무량사(無量寺)에서 고려 대각국사를 종조로 모시고 천태종의 진정한 법맥 계승을 천명하며 ‘대한불교법화종’ 중창을 선포했다. 1956년에는 여러 갈래로 나뉘었던 모임을 규합해 무량사를 본부로 ‘대한불교법화종’을 공식 창설하기에 이른다.

초대 종정에 추대된 스님은 막대한 사재를 털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종단 부서를 정비하는 등 교세 확장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 결과, 창종 31년 만에 1천여 개의 사암과 100여만 명의 교도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대종단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혜일 스님은 천태교관의 오시팔교설(五時八教說)과 사종삼매(四種三昧)를 교학의 기본으로 확립하고, 구원실성의 여래본존을 절대적으로 의빙하는 종체를 완성했다. 일평생 드러내지 않는 하심(下心)으로 자비의 법력을 나투었던 스님은 1982년 열반에 들며 11과의 영롱한 사리를 남겨 그 수행의 깊이를 묵언으로 증명했다.

해방 후 1946년 중창, 발걸음
1000여 사찰, 100만 교도 위상
한국불교계 주요종단 자리매김

수년간 내홍딛고 종단 안정화
13개교구 정립, 미래비전 수립
대중교화 새 희망의 길 비추다

一佛乘 대선언, 〈묘법연화경〉 가르침 전하다

‘대한불교법화종’의 굳건한 토대인 소의경전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대승불교권 전체를 통틀어 ‘경중왕(經中王)’으로 칭송받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다.

〈법화경〉의 핵심적인 철학은 ‘일불승(一佛乘)’ 사상으로 이전까지 소승적 수행의 목표였던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이라는 세 가지 수레(三乘)를 모두 하나로 모아, 결국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된다’는 일불승으로 귀결시키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을 드러낸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유일하고도 거대한 이유(一大事因緣)는, 뭇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열어 보여주고, 이를 깨닫게 하여 진리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개시오입(開示悟入)’에 있다고 웅변한다.

대한불교법화종은 더나아가 이 숭고한 경전의 사상을 한반도 토양에 맞게 꽃피운 신라 원효대사의 사상을 깊이 체화하고 있다.

원효대사는 일체 중생에게 본래부터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일승이(理), 일승교(教), 일승인(人), 일승과(果)의 네 가지 구조로 독창적이고 명확하게 체계화했다. 원효가 신라 민초들에게 전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강력한 긍정의 철학은, 오늘날 대한불교법화종이 중생 구제의 최일선에서 펼치는 대중불교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대한불교법화종은 실상(實相)의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과감히 대중 속으로 들어갔다. 본존인 석가모니불과 더불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쉽게 염불하도록 이끌고 있다. 살아 생전 그대로 부처를 이루는 즉신성불(即身成佛)의 기쁨을 설파하고 있다.

시련넘은 제2도약, 미래 100년 희망

지난 80년 한 종문에서 갈라져 나와 방대한 교세를 이루기까지 대한불교법화종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재 대한불교법화종은 전국적으로 13개 지방 교구와 약 1000여 개의 사암을 거느린 방대한 교세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종단 내부 갈등은, 교단 발전을 잠시 멈춰 세우고 신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리의 법맥은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매화가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내듯, 법화종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종도들의 원력을 모아 혼란의 마침표를 찍고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과거 혼란기에 부득이하게 폐쇄되었던 제주교구를 최근 성공적으로 복원해 내며 대내외적인 화합과 종단 정상화의 찬란한 결실을 증명해 보였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 불교계 전체에서 대한불교법화종의 위상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이다.

본래 대한불교법화종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연합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출범 당시 초기 등록 종단으로, 초창기부터 역사적 정통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은 종단이다. 한때 2위였던 의전 서열이 내부 진통으로 인해 2020년경 29위까지 밀려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내홍을 딛고 안정화 후 2025년 4월 종단협 이사회에서 28개 회원 종단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상임이사 종단’ 위상을 공식적으로 회복했다. 이는 대한불교법화종이 과거 영광을 되찾고,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대표 종단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다시금 굳건히 세웠음을 의미하는 쾌거다.

한국불교 대표종단 큰 걸음 시작

대한불교법화종이 지난 80년간 쉼 없이 외쳐온 일불승(一佛乘)의 진리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서 있다. 억압과 분열의 역사를 넘어선 종단의 발자취는 그 자체로 사바세계를 정화하는 처염상정의 하얀 연꽃과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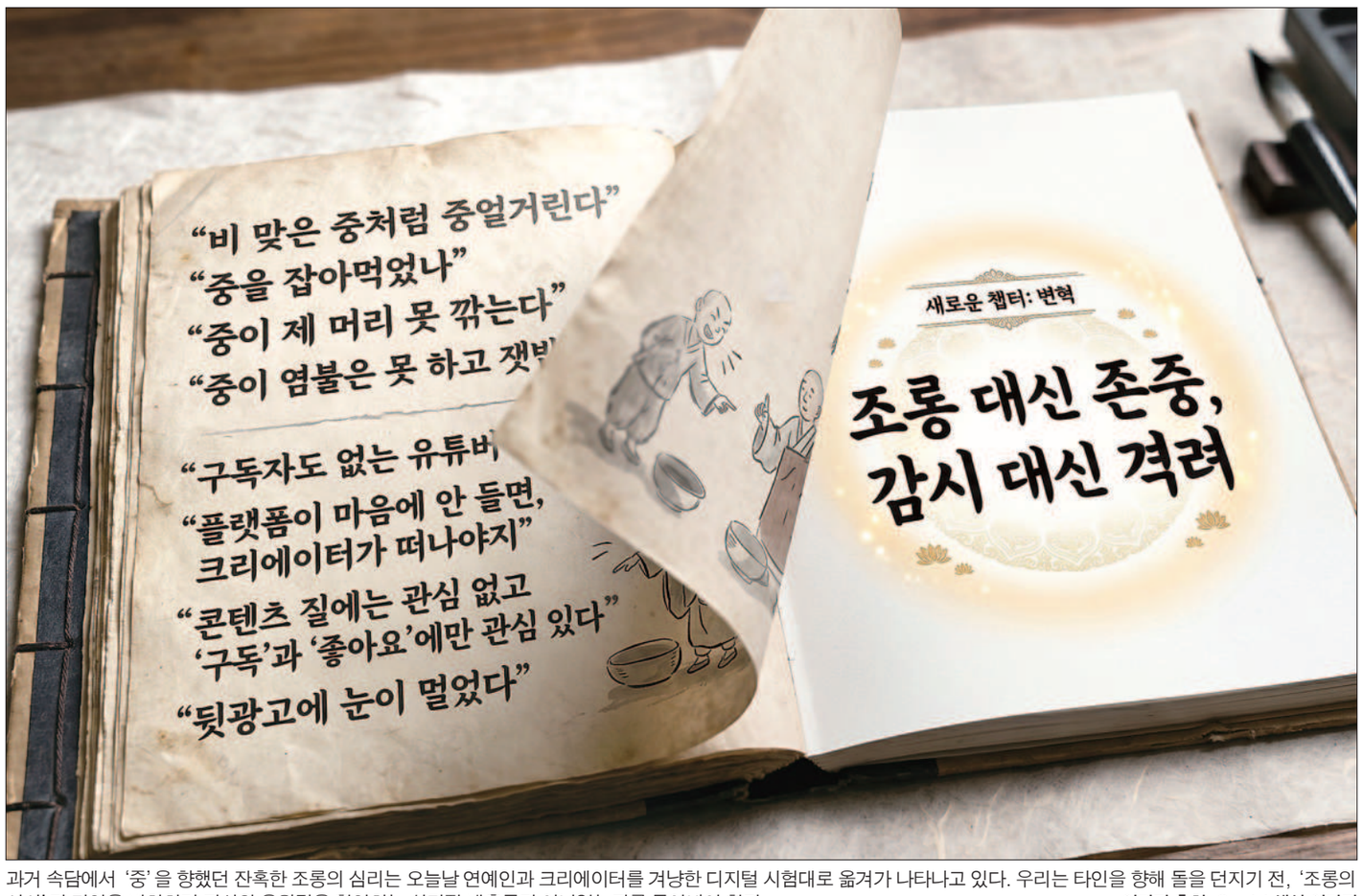
창종 80주년을 맞은 2026년, 대한불교법화종은 다시 한번 세상에 자비의 손길을 내민다. 삼승을 하나로 아우르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의 화합 정신은, 갈등으로 얼룩진 현대 사회의 상처를 보듬는 묘약이 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 100년, 대한불교법화종이 밝히는 진리의 횃불이 고단한 인류의 삶을 따스하게 비추는 가장 찬란한 희망의 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한다.



조롱의 투석 거두는 세상을 꿈꾸며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⑤ 삭발하지 않은 승려들, 현대판 '중'의 탄생 : 디지털 시험대에 놓인 새로운 타자들



과거 속담에서 '중'을 향했던 잔혹한 조롱의 심리는 오늘날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를 겨냥한 디지털 시험대로 옮겨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 '조롱의 서사'가 타인을 비하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심리적 배출구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이미지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지난 칼럼에서 살펴봤듯, 속담 속 '중'은 마음껏 비웃어도 보복당할 염려 없는 '가장 만만한 상대'였다. 눈에 띄는 삭발과 금욕의 삶은 대중에게 손쉬운 조롱의 구실이 됐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들을 비하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심리적 배출구로 삼아왔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는 이런 속담을 즐겨 쓰지 않는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비 맞은 중" 같은 말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사어(死語)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상어에서 더 이상 '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중생심'도 함께 사라진 것일까.

안타깝게도 언어의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그 심리적 문법은 더욱 잔혹하게 살아남았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과 대중문화 안에서 조롱해도 안전한 '또 다른 중들'을 찾아냈을 뿐이다. 바로 크리에이터와 연예인이다. 과거의 속담 속 '중'이 이들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변주되고 있는지, 그 세계로 들어가 보자.

산문에서 플랫폼과 전파의 질서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 오래된 속담은 산문(山門)의 질서가 절대적이던 시대의 언어다. 오늘날 이 문장은 디지털과 대중문화 생태계에서 이렇게 변주된다. "플랫폼이 마음에 안 들면, 크리에이터가 떠나야지", "시청자가 외면하면 연예인이 은퇴해야지."

크리에이터는 플랫폼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연예인은 대중의 기호와 방송계의 문법에 종속된다. 그들은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전시하고, 여론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조율해야 한다. 그 질서가 불합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 대중이라는 절대 권력은 애초에 질문 자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능의 바닥선, 그 낙인의 언어

"중노릇도 못할 놈." 이 말은 단순한 욕이 아니다. '중'을 가장 쉬운 역할로 놓고, 그것조차 못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표현이다. 이렇게 남을 가장 아래에 내려놓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은근히 "나는 저보다는 낫다"는 우월감을 맛본다.

이런 말투는 지금도 형태만 바꿔 살아 있다. "구독자도 없는 유튜버", "무명 연예인"이라는 비아냥이 그렇다. 특히 유튜브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가장 쉬운 일조차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예전의 '중'이 최소한의 역할도 못 하는 존재로 그려졌듯, 지금의 인기 없는 크리에이터나 셀럽들도 비슷한 위치에 놓인다. 조롱의 표현은 달라졌지만, 남을 가장 아래에 세워두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그 심리적 문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珥 조롱 대상 된 크리에이터와 연예인
과거 '중' 조롱하던 속담 심리의 확장판
타인 깎아내며 우월감 확인 심리 작용
'방송 퇴출'·'활동 중단'까지 이르게 해
디지털 시험대 향한 잔혹한 불길 멈춰야

디지털 삭발: 숨을 곳 없는 노출의 얼굴

과거의 중에게 '삭발'이 숨을 곳 없는 외형적 표식이었다면, 현대의 방송인에게는 매체에 노출된 '얼굴' 그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삭발이다. 카메라 앞에 선 순간 그들은 발가벗겨진 타자가 된다. 대중은 그들의 일상을 초 단위로 감시하며, 그들이 정말로 '구독자 수'나 '인기'라는 번뇌를 끊고 대중에게 약속한 '진정성'이나 '청정한 이미지'를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현대판 파계(破戒)의 서사와 닮아 있다. 음식을 몰래 뱉는 '먹뱉'이나 가짜로 연출된 '주작' 영상, 연예인의 '인성 논란'은 수행자가 가짜 염불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중은 그 배신감을 빌미로 거침없이 공격한다. 물론 잘못을 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앞에 선 대중의 상태는 정의감보다는, 가학적 쾌감이나 집단적 폭력에 더 가깝다는 게 문제다.

심지어는 없는 허물까지 찾아내려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한다. 과거 "중의 상투"나 "중 나라 가서 빗 찾기"처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 조롱거리로 삼으려 했듯, 오늘날 대중은 셀럽의 비공개 계정이나 오래된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서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잿밥의 변주, 구독과 좋아요

"중이 염불은 못 하고 잿밥만 밝힌다." 이 속담도 오늘날 셀럽에게 그대로 반복된다. "콘텐츠 질에는 관심 없고 수익에만 눈이 멀었다"거나 "뒷광고나 CF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이 바로 그것이다.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에게 염불은 대중과 약속한 가치이자 본업이며, 광고 수익과 골드 버튼은 세속적 잿밥이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안 남는다", "중이 젓갈 맛을 알면 불상을 팔아 치운다"처럼 금욕을 선언한 자가 스스로 설정한 금기를 깨는 순간, 대중의 비난은 거세진다. 이는 올바른 정보 제공자를 자처하다가 뒤로는 자본과 결탁한 '뒷광고' 논란이 터질 때 그대로 변주된다.

뒷광고 논란이 터지면 대중은 이유도, 해명도 기다리지 않는다. 위선의 냄새를 맡은 순간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다. 그 모습은 공정한 비판자라기보다, 조롱해도 안전한 대상을 찾아낸 순간의 본능적인 흥분에 더 가깝다. "중이 고기 맛을 알았다"는 소문 하나면 충분했듯, "유튜버나 배우가 돈맛을 알았다"라는 단어 하나면 충분하다. 대중은 그를 시험대 위에 올려 마음껏 돌을 던진다.

자비 없는 추적자: 더 가혹해진 디지털 사형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이들을 향한 공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잔혹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중은 파계를 하면 산문 밖으로 쫓겨나는 정도로 끝났지만, 현대의 '디지털 중'들은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추적자들에 의해 사회적 숨통이 끊길 때까지 공격당한다. 특히 연예인에게 내려지는 '방송 퇴출'과 '활동 중단'은 현대판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이는 과거 '중'을 조롱하던 심리의 확장판이다. 본래 중은 출가와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 줄 가족과 친척의 배경을 스스로 끊어낸 존재였다. 그래서 탈춤 속 '중'에 대한 조롱은 양반을 비웃을 때와 느낌이 달랐던 것이다. 현실의 권력을 쥔 양반을 조롱할 때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뒤를 보아줄 사람이 없는 '노장'을 향한 조롱은 거리낌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마음껏 돌을 던져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는 그 비겁한 안도감이 '중'을 가장 만만한 과녁으로 만들었다.

오늘날의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역시 대중의 관심이 끊기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배후 없는 개인'들이다. 정치 권력이나 거대 자본을 건드리는 일은 여전히 보복이 두렵지만, 이들을 향한 공격은 화면 속에서 즐기는 '안전한 심판의 유희'로 바뀌어 버린다.

결국 우리는 가장 만만한 대상을 골라 낙인을 찍는 '현대판 마녀사냥'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생심은 주소만 옮겼을 뿐

속담 속 '중'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더 잔혹한 디지털 시험대가 세워졌음을 살펴보았다. 비하의 대상이 다른 이들로 옮겨갔을 뿐, 타자를 깎아내려 내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우리 안의 지독한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누군가 물을 수 있다. "불교 칼럼에서 왜 엉뚱하게 방송인 이야기를 다루지?"라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내 집 불이 꺼져간다고, 옆집으로 번지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게 정말 괜찮은 일이냐고. '중생심'이라는 이 지독한 불길이 담장을 넘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냐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집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불교적 통찰은 단순히 불교 용어가 공격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언어 속에 투영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연예인과 유튜버 이야기가 불교와 무관해 보여도, 그 안에서 변주된 '중생심'까지 보아야 불교의 풍경을 제대로 읽는 일이다. 대상이 누구든, 누군가를 만만한 과녁으로 삼아 돌을 던지려는 그 손을 멈추는 찰나, 당신은 이미 붓다이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천상의 음악

사찰벽화 명작순례

⑧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의 악기벽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의 악기벽화.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장엄의 정수
해남 대흥사 대웅전 악기벽화 기획적
진채로 표현한 전통 국악기의 향연
부처님 진리 설법에 대한 환희와 예경

영남의 고전주의, 호남의 낭만주의

17, 18세기 한국산사 법당장엄은 영호남 사이에 서로 대비되는 경향으로 전개됐다. 영남지역 법당장엄은 고전주의 경향이 뚜렷하다. 체계적이며 전통의 규범에 엄격하다. 건축이나 조형, 단청 등 종교장엄 전반에서 남성적인 묵직함이 있고 근엄한 분위기가 흐른다. 그에 비해 서남해안 지역의 법당장엄은 다채롭고 명랑하다. 특유의 해학과 익살이 살아있으며 자유분방한 낭만주의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부드럽고 여성적이다. 영남 지역 사찰장엄은 고전의 전통과 불교교의, 교학적인 이성에 바탕을 이룬다. 서남해안 지역의 사찰장엄에는 창조적인 재해석의 안목과 예술적 상상력, 감성이 원천을 이루는 특징을 보여준다. 영남 지역의 고전주의 경향은 봉정사, 범어사, 직지사 대웅전이나 통도사 대광명전 등을 손꼽을 수 있고, 호남의 낭만주의 경향은 서남해안 지역의 미황사, 선암사, 내소사, 천은사 등의 법당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특히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은 17, 18세기 서남해안 지역 낭만주의 법당장엄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국산사 창호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꽃살문, 맑고 따스한 빛의 단청장엄, 후불벽 뒷면의 수월관음벽화 등 사찰장엄 곳곳에 서남해안 지역의 황톳빛 서정과 따스한 질감이 스며있다.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은 빗반자와 우물반자로 조합한 궁륭형이다. 법당 가장자리는 널빤지로 엮은 비스듬한 빗반자 천정이고, 중앙부는 격자반자로 엮은 우물천정이다. 그래서 법당의 상부가 부드러운 곡면으로 둥그스름해 보인다. 사방 가장자리 빗반자 천정은 연지(蓮池)의 세계다. 빗반자 널빤지에 흰색 구름을 그려넣고, 그 위에 X자로 꼰 연꽃봉오리와 물고기, 게 등을 조각했다. 구름과 연꽃과 게를 공생의 공간에 조영한 천진난만하고 걸림이 없는 자유로움에서 해학과 상상력 넘치는 낭만을 읽을 수 있다. 연지의 본질은 화엄의 연화장세계다. 대단히 고차원적이며 초월적인 화엄의 세계를 천연덕스러운 익살로 풀어놓았다.

법당 중앙부 천정은 우물반자 천정이다. 어간 48장, 좌우 협간에 각 5장씩, 모두 58장의 우물반자로 엮었다. 어간 48장 반자에는 연꽃과 모란, 신령한 진언의 범자 종자자를 대단히 목적의식적으로 구획하고 배치했다. 중심에 배치한 진언을 연꽃과 모란으로 겹겹이 감쌌다. 우물반자 천정의 중심부에 무엇을 보장했을까? 연꽃 속에 '옴자례주례춘제사바하' 준제진언과 '옴람' 정법계진언을 심어 보장해뒀다. 지혜와 자비행, 청정한 마음, 그 셋을 고귀하게 심어 놓았다. 그것은 중생의 육바라밀 보살행과 청정한 마음을 조형화한 것으로, 〈화엄경〉을 비롯해서 모든 시방삼세 제불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삼세여래일체동'이니 모든 부처님은 둘이 아니고, 진리의 가르침도 둘이 아니다.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장엄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진언의 범자 종자자로 소중히 갈무리하고 있다.

10장의 우물반자에 11종 악기벽화

좌우 협간 우물반자 천정의 단청장엄은 대단히 이채롭고 경이롭다. 장엄 소재가 보기 드문 전통악기이기 때문이다. 천정의 악기벽화 장엄은 희유한 미증유의 사례다. 실제 몇몇 법당의 천정에서 악기를 그린 벽화를 볼 수 있다.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문경 김용사 대웅전,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양산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 강원도 고성 일주문 천정 등에서 드문드문 보게 된다. 특히 대흥사 대웅보전 천정의 악기벽화는 유례없이 크고 내소사 악기벽화만큼이나 기획적이다. 묘사한 악기 개수도 북, 장구, 해금, 바라, 생황 등 9점이나 된다. 내소사 악기벽화와 비교할 만하다. 하지만 대흥사 악기벽화는 근래에 이뤄진 단청장엄이라는 안타까운 한계를 지닌다. 다른 곳의 악기벽화 역시 내소사 악기벽화의 묘사력이나 예술적 성취도와는 비할 바 못 된다. 내소사의 악기벽화는 그만큼 독보적이고 단연 뛰어나다.

내소사 악기벽화는 대웅보전 좌우협간 우물천정의 격자반자에 현존한다. 좌우 협간 반자 5장씩, 모두 10장에 그려 뒀다. 반자 하나의 평균 크기는 세로 75㎝, 가로 57㎝다. 반자 한 장마다 하나의 악기를 그렸다. 특별히 반자 한 장에는 거문고와 횡적, 두 악기를 한 곳에 그려 넣어 10장의 천정반자에 모두 11종의 악기가 등장한다. 천정반자에 도설한 악기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향좌측(6종): 바라, 나발, 향비파, 생황, 횡적과 거문고
향우측(5종): 장구, 북, 해금, 당비파, 박

전통악기는 원래 '팔음악기'라 하여 우주의 여덟 절기에 대응하는 8가지 재료(쇠, 나무, 가죽, 대나무, 명주실 등)에 따라 악기를 분류했다. 예컨대 동지-가죽-북과 장구, 하지-명주실-해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악기의 소리를 우주의 소리로 해석했다. 벽화에선 팔음악기 분류 중에서 쇠로 만든 징이나 편종, 옥돌을 재료로 하는 편경 등은 없다. 내소사 악기벽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사실적 묘사, 둘째는 전통악기의 집합성, 셋째는 진채 묘사다. 그런 점에서 내소사 악기벽화는 전통악기의 교본이나 도감 역할을 한다. 그것도 300년 넘은 진채 도감이다. 한국의 국악 역사에서 최초의 전통악기 컬러 도감으로 비중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진채로 그린 또 하나의 악학궤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악기도설은 1493년에 성현이 펴낸 〈악학궤범〉에 근거한다. 9권 3책으로 펴낸 〈악학궤범〉의 6, 7권의 '악기도설'에는 악기 모양은 물론이고 각 부분의 치수와 색깔, 재료, 연주법 등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악학궤범〉은 목판본으로 먹으로 찍어내서 흑백이다. 수백 년 전의 전통악기 컬러 도판은 두 가지 조형 형식으로 전해진다. 하나는 불화를 통해, 다른 하나는 벽화 형식이다. 악기만을 그린 진채불화는 없다. 신중도나 극락왕생도, 감로도 등의 불화 속에서, 또는 법당의 주악비천도 벽화 속에서 악기 연주자와 함께 표현한다. 오방색의 진채로 악기도설의 도감 형식으로 표현한 사례는 내소사 악기벽화가 유일무이하다. 그것은 불교미술사에서, 또 국악의 역사에서 주목하고 특기할 만한 의의를 가진다. 진채로 그린 또 하나의 〈악학궤범〉 '악기도설'로서, 진채로 그린 전통 국악기의 향연을 펼쳐 놓았다.

내소사 악기벽화 몇몇은 대단히 사실적이고, 또 몇몇은 대단히 독특하다. 당악용 당비파는 목이 꺾인 4현 악기이고, 향악 연주용 악기인 향비파는 목이 바른 5현 악기다. 벽화에서 당비파 묘사는 '악기도설'만큼이나 정확하다. 현의 개수는 정확히 4줄이고, 목은 꺾여 있다. 향비파는 뒷모습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악기를 표현한 것이지 그 실체가 애매모호하다. 해금의 묘사도 섬세하다. 해금은 활로 현을 긁어 음을 내는 찰현악기다. 현의 수는 벽화의 묘사처럼 두 줄이다. 한 줄은 높은음, 다른 줄은 낮은음을 낸다. 현을 긁는 '활'을 말 그대로 활처럼 그려서 재밌다.

'생황'이나 '박(拍)'의 표현은 인상적이다. 원래 생황은 박이나 나무로 만든 둥근 울림통에 17개의 길고 짧은 대나무 관대를 박아놓고 울림통의 취구에 입을 대고 하모니카처럼 연주하는 악기다. 길고 짧은 대나무 관대의 형상이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형상이라 악기 이름에 '생(生)' 자를 넣었다고 전한다. 벽화에선 죽관은 10개뿐이지만 취구부와 울림통만큼은 대단히 독창적이다. 영락없는 대형 담배 파이프 형상이다. '박'의 표현도 독특하다. '박'은 음악의 처음과 끝을 맡는다. 시작할 땐 한 번 치고, 끝날 땐 세 번 친다. 〈악학궤범〉의 도설에 따르면 박은 나무판 여섯 편을 묶어 제작한다. 그런데 벽화에선 심플하다. 단 두 편의 나무판으로 단순하게 제작한 독특한 모습이다. 가죽으로 만든 장구와 북은 공통적으로 표면에 삼태극 문양을 장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구를 제외한 모든 악기는 비천의 표대 자락처럼 긴 매듭 장식을 갖췄다. 바람에 나부끼는 매듭 자락은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음악의 선율을 시각적으로 환기시켜 준다. 여기서 의문 하나가 남는다. 왜 천정에 연주자 없이 악기를 그렸을까?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극락정토를 떠올리는 제6관 '총상관'을 아난과 위제희 왕비에게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많은 보배 국토 각각의 경계마다 5백억 개의 보배 누각이 있어 그 누각에서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이 천상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느니라. 그 악기들은 천상의 보배 깃발과 같이 허공에 매달려 있으며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는데 그 소리는 모두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게 하느니라."

또 〈묘법연화경〉의 개경(開經) 격인 〈무량의경〉에선 "하늘 당기와 번기가 세워지고 하늘 일산이 펼쳐진 가운데 건달바들이 하늘의 묘한 악기를 펼치고는 미묘한 하늘의 음악으로 부처님의 설법회상을 장엄했다"는 대목도 보인다. 벽화 속 악기는 하늘에서 저절로 울려퍼지는 음악의 상징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환희와 예경의 뜻을 담고 있다. 법당에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 설법이 펼쳐지고 대중의 환희지가 벅차거늘 어찌 박 소리가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지 않겠는가. 새 소리, 바람 소리, 꽃이 피는 소리…. 세상천지에 음악이 가득하다.



노재학 작가



중생 배추에게

시, 불교를 만나다

㉛ 중생심 : 나희덕의 '배추의 마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학장님, 너무해요."

"그래. 너는 무 해. 나는 배추 할게."

가까운 지인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다. 네가 무를 하면 나는 배추를 하겠다는 일종의 '아재 개그'다. 이런 농담이 재미있는 걸 보면 나 또한 아재가 맞기는 맞는 것 같다.

배추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식재료다.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기후 이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국에 난리가 난다. 그야말로 가격이 폭등해서 김치가 금치로 둔갑한다. 개인적으로 배추김치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밥도둑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배추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일이 내게는 끔찍하다.

이러한 배추를 통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멋진 시 한 편을 만났다. 나희덕 시인의 '배추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맛있는 김치의 재료인 배추에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해주는 철학적 사유가 들어있었다. 아니, 시인이 의미를 캐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시인은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것이 없다면 삶의 기쁨 하나가 사라질 것 같다. 그렇다면 배추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나희덕은 가수 안치환이 부른 '귀뚜라미'의 작사가로 알려져 있다. 높은 가지 위에서 한여름을 호령하는 매미에 묻혀 소외된 삶을 살다가 가을이 오면 '귀뚜르르' 하는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작품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 시인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정이 오늘의 주제인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에게도 전해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그네를 타면서 노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어쩌면 주황색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운 시심이 자란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나희덕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뿌리에게'가 당선돼 등단하게 된다.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시인은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를 비롯해 〈그곳이 멀지 않다〉, 〈어두워진다는 것〉 등 수많은 시집을 출간한다.

수상 경력도 화려해서 백석문학상과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수영문학상 등을 받았다.

현재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평론가는 그의 시를 가리켜 '따뜻함과 단정함의 미학'이라 부른다. 그 따스함이 오늘의 시 '배추의 마음'에도 배어 있다.

'배추의 마음'은 1994년 출간한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에 수록된 작품이다. 출판사에 의하면 이 책에 실린 59편의 시들은 "꽉 짜인 듯 보이는 일상이 얼마나 많은 틈을 지니고 있는지, 그 일상을 꾸려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안타까이 바라보는 시선은 섬세하며 성숙해진 시 세계를 보여준다"고 소개한다. 이 책에 수록된 '거스름돈에 대한 생각'의 일부분이다.

"삶은 왜 / 내가 던진 돌멩이가 아니라 / 그것이 일으킨 물무늬로서 오는 것이며 / 한 줄기 빛이 아니라 / 그 그림자로서 오는 것일까 // 왜 거스름돈으로서 주어지는 것일까"

거스름돈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내용이다. 시인에 의하면 "삶을 받은 것은 무언가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상에 공짜로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통찰이 돋보이는 시다. 그렇다면 시인은 배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았을까?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 하도 자라지 않아 /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 여름내 밭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 —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 —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 늦가을 배추포기 묶어주며 보니 /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 —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배추가 건네는 풍요로운 삶의 의미
땅속 생명 품은 옛 절집 풍경 떠올라
생명 희생 자각 시 감사한 삶 시작돼

중생심이 진리다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시의 첫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열반경〉의 말씀이 떠올랐다. 여기에서 중생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배추를 포함해서 무와 옥수수, 나무, 꽃, 귀뚜라미 등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 자화자찬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九類衆生)이라 해서 중생의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若非有想非無想]' 중생도 등장한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생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 혹여 하나라도 빠트린 중생은 없는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나온 분류인 것 같아 부처님이 왜 위대한 분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법회를 마치면서 '가없는 중생을 모두 건지겠다[衆生無邊誓願度]'는 서원으로 회향하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진리란 중생심이다[所言法者 謂衆生心]."

이 대목을 처음 보았을 때,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탐욕[貪]과 성냄[瞋], 어리석음[痴]이라는 삼독(三毒)에 중독돼 살아가는 중생의 마음을 진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다. 비록 번뇌, 망상에 찌들어 살아가지만, 본래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었다. 앞서 언급한 〈열반경〉의 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중생의 마음이 진리라면 오늘의 주인공인 중생 배추 또한 본래는 부처 아니겠는가. 어쩌면 시인은 부처의 마음으로 배추를 바라본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씨앗을 뿌리고 농약도 치지 않고 정성껏 기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키웠는데 배추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인은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름내 밭둑을 걸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 —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이는 부처의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의 언어다. 그러다 보니, 배춧속에 있는 벌레마저 마음이 쓰인다. 시인은 혹여 배추벌레가 그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할까 봐 꼭 동여매지도 못한다. 이것이 곧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다. 배추 또한 벌레에게 절반이나 먹히고도 속은 점점 깨끗한 잎으로 차오른다. 이런 배추의 마음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시인은 말한다. 배추를 기르면서 그 풀물이 포기를 묶어주는 사람의 소매에도 들고 말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니, 옛 선사들의 절집 풍경이 떠올랐다. 혹여 땅속의 생명을 해칠까 봐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그 고귀한 마음 말이다. 거기에는 내가 걷는 발걸음에 개미와 같은 작은 생명들이 다칠까 두려워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던 마음도 담겨 있었다. 모든 중생이 부처요, 그들의 마음이 곧 진리라는 철학적 사유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중생을 해치고 먹으면서 살아간다. 이들이 없다면 한시도 생존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절집에서 공양하기 전에 이런 게송을 독송하는 이유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정성이 깃든 음식으로 이 몸을 길러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되는 말씀이다. 배추 한 포기에 스며 있는 천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입은 호강하며 살아간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不殺生)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배추, 무와 같은 식물에도 해당한다. 그들도 땅에서 뽑히고 칼에 잘려나갈 때 아픔을 느낀다. 시인의 지적처럼 마음이 있고,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식물 가릴 것 없이 이들을 해친다면 모두 살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희생 없이 인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배추의 풀물이 소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곱게 물들면 좋겠다. 〈끝〉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 자신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걸 증득하라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없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있고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종교가 어떻고 어느 종교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양면을 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는, 우리가 나라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상점 상점이 간판을 가진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 간 데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대로, 불교 그대로 생명이자 영원한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다 가톨릭교다 또는 불교다 종파가 다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끄달린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의 행복도 자유스러운 삶도 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데 진짜로 이 도리를 알아야 생활 불교이고, 생활이 즉 참선이요 좌선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입니다. 이 하나하나 발자취 걸어 다니는 것도 바로 한도량의 한발인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알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 각자 마음을 증득하라. 여러분 각자 사람부터 돼라. 부드러워라. 폭을 넓혀라." 하고 설하셨습니다. "폭을 넓혀라" 그 소리는 '지혜로워라' 하는 소립니다. "지혜로워라. 모든 것을 너의 소견으로만 살지 말고 남의 소견에 서서 좀 양보할 줄 알고 좀 더 사랑할 줄 알고 지혜로울 줄 알아라. 과거에 살던 그 모두의 인연 소치들이 네 몸에 잔뜩 모여서 지금 고덩어리가 돼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덩어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체내에는 수많은 생명들과 수많은 의식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학술적인 의학이 아니라 정신적인 의학이 돼야 하고 우리 생활도 정신적인 생활이 돼야 하고 노동도 정신적인 노동이 돼야 하고, 모든 게 정신적인 데서만이 현실로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전부 두루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만한 구석에서, 아니 지구가 한 항아리라면 항아리 안에서 살기도 뭐한데 지금 국내에서도, 세계 안에서도, 또는 내 몸 안에서도 나를 못 끌고 간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어떻게 불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체내에 있는 그 중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시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많으냐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름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많은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거기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그러는 반면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인과로 만난 인연들은 그 속에서 먼저 가서 안 되게 하고, 벌써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먼저 가서 방해를 놓고 그러니 여러분 몸이 가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미래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 현실은 미래에서 볼 땐 과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自神)'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지 말고 주인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주인이 없으면 온갖 것이 다 들락거리고, 세균성 영계성 또는 업보성 유전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빈집이 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온갖 것을 다 파괴를 시키고 이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야만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세계의 노예 생활이라 이 소립니다.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내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곤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화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태초가 어디냐?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고 거슬러 내려갈 것도 없죠. 여러분이 난 것이 바로 태초요, 여러분 몸이 이 세상에 생긴 것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화두를 딴 데 가서 찾는다면, 딴 데서 받는다면 그건 부처님 당시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후에 너무 선맥이 미약해지고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약해지니까 큰스님들께서 화두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버릇이 되고 일과가 돼 가지고 항상 '이게 뭣고?' 이럽니다. 뭐긴 뭡니까? 이 세상에 난 것이 여러분 공한 그 몸뚱이, 그 자체 속에 중생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바로 혹성 덩어리죠. 의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던 내 조상부(父)와 지금 현재에 사는 자(子)와 상봉을 해야만이 스스로 의정이 터지고 스스로 의정이 나고, 스스로 '그 뭣고?'가 돼서 '세상의 그 입자가, 원자에서 입자가 화해서, 수만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이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는구나! 이게 무엇일꼬?' 하고 그 의정이 터지는 거지 남이 줘서 의정을 가지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럼 의정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여러분 대신 똥 눠 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신 자 주는 사람 없죠? 아무리 친철해도. 먹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죽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왔다 혼자 걸어갑니다. 내 몸뚱이도 내가 갈 때 그렇게 씻기고 입히고, 더울 때 시원한 옷 입히고 추울 때 더운 옷 입히고 만지고 씻고 바르고 이렇게 해 줬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아무리 많고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서 돈을 쫓아갔지 돈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쫓아다닙니까?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또는 자식과 부부지간도 배웅이나 가면 갔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누가 갈까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주인공은 여러분을 형성시켰고, 형성시킨 사대가 흩어질 때는 바로 주인공과 둘이 아니게 한뜻 한마음 한 행동, 바로 공식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미래세계에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미래의 세계에 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허공에서 떠돌거나 착이 있어서, 습이 있어서, 아집 아상이 있어서, 나라는 게 있어서 그 집 언저리에서 뱅뱅, 자기 아는 대로만 거기에서 돌다가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습을 딴 걸로 태어나는 수가 많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어서 또 인간으로 세 번 태어나기가 극히 어렵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악도 놓고 선도 놔라. 선을 위주로 하면 악이 따르고 악으로 가면 선이 따르기 때문에 네 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이 불바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소견으로만 살지 말고 지혜로울 줄 알라

☞ 19면에서 계속

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지금 과학으로 따지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바퀴를 말하는 겁니다. 삼천 년 전에도 불바퀴를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블랙홀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말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삼천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삼천 년 전만 아니죠. 단군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81자를 남겨 놨습니다. 인간이 왜 뒤처져서 맨 나중에 나왔느냐고 하신다면, 수많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면서 진화되면서 다른 거는 다 빨리 빨리 컸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그것이 커서 진화되면서 인간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인간이 됐다 합니다. 거듭거듭 진화를 해서 바로 인간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저 수박 겉 핥듯….

보세요! 작년 수박씨를 올해 심었는데 올해 수박이 싹이 났습니다. 싹으로 화했단 말입니다. 싹으로 화했는데 그 씨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예? 바로 그 씨가 화해서 싹으로 됐기 때문에 그 싹이 수박을 또 열리게 해 가지고 그 수박이 바로 씨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싹으로 나서 이렇게 여러 해 사시고 어른이 됐으니 수박은 벌써 무르익었다 이겁니다. 그대로 부처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 부처는 말로만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서 여러분을 알아야 부처인지 부처가 아닌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수박씨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기, 과거 자기를 찾느라고, 자기 씨를 찾느라고 온통 바깥으로 헤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수박 자체는 자기 안에 자기 씨가 있으니, 과거 씨가 자기 안에 있으니 자기 안에 있는 그 씨가 자연의 불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어라 이겁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박 겉과 안에 살과 씨와 같이 한꺼번에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갑니다. 과거 씨를 현재에 심고 현재의 씨를 미래에 심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도 오늘이요, 미래도 오늘이요, 오늘도 공했노라.

오늘도 고정됨이 없죠? 여러분! 고정된 게 있습니까? 만남도 여러분이 아내를 만날 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이 되고, 부모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바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만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여하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시면서도 자동적으로 사시는 그 자체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림 속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연구하시고 실험하시고 그리고 체험하시라. 그래야 부처님의 그 뜻을, 골수를 아신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의 살을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골수를 믿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으러 다닙니까? 고깃덩어리는 사대가 흩어지면 그뿐입니다. 누구나가 다, 부처님께서도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네 자신을 알면 내 자신과도 둘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연꽃을 들고 한 팔을 번쩍 쳐들었을 때, 가섭이 싱긋이 웃었을 때 어떤 경과가 있었을까요. 그 이심전심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마음이었습니다. ‘모습을 보지 말라’ 하시고선 연꽃을 들고 여러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한 생명이며 한 자리이며 한 법이고,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두 자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두 마음이 아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 없이 전달이 되면서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살고 있느니라.’ 하는 그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 악도 놓고 선도 놔라.
> 선을 위주로 하면 악이 따르고 악으로 가면 선이 따르니
> 네 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왜 다보탑에 반 자리를 내주셨을까요? 한마음에서 바로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뜻을 가르치고 두 자리가 아니라는 뜻을 가르친 겁니다, 간단하게 비유해서. 아무리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대로만 고집해서, 지금 시대가 변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신 그 용어 그대로 써야겠습니까?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용어로다가 바꿔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 감화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부처님을 숭상하는 일이고 진짜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신 그 뜨거운, 뼈저린 그 피 한 방울을 500년 후에는 어떻게 이 뜻을 중생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선 “500년 후에도 지금과 더불어 똑같이 그 뜻을 반영하고 그대로 알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길을 걸을 것이니라.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볼 때,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뜻을 볼 때는 삼천 년 전이나 오백 년 후나, 후도 없고 전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이상 부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부처 아닌 게 부처이지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닙니다. 화두를 들었다 하면 벌써 그건 안 든 겁니다. 내가 좌선을 한다 그러고 앉았으면 좌선이 아닙니다. 일어나면 벌써 생각부터 하고, ‘밥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고 ‘일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고 ‘똥 눠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니 그 선은 항상 도루묵이 되는 거죠.

회양 선사가 마조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도 미약해서 머리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하루는 기왓장을 가지고 그 앞에서, 좌선하는 앞에서 갈았습니다. 가만히 좌선하면서 내려다보니깐 엉뚱하게 선사가 기왓장을 갈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하시려고 그렇게 가십니까?” “나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말씀을 지금 내가 되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마조 스님은. 저건 무슨 일일까 하고 “그래, 그것이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양으로 그렇게 앉았느냐?” 하니까 부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놈아, 일어나지도 말고 똥도 누지 말고 먹지도 말고 오줌도 누지 말고 일어나지 말아야 선맥이 끊어지질 않지, 일어나면 선맥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난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우리한테는 거름입니다, 거름!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실의, 지금 이 자리의 거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내놓으라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 앞에 있던 목탁을 탁 치고선 나가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동당 서당에서 네 고양이 내 고양이 하고 싸우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도 못 하니까 고양이 모가지를 딱 쳤죠. 나중에 저녁에 들어오신 스님한테 그 말씀을 여쭈니까 아무 소리 없이 짚신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고선 그냥 슬그머니 나가시더랍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어서 이 지구 바깥을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원자에서도 입자가 그렇게 많이 있고 이 허공에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비행기를 띄우려고 그러는데 양쪽에 통이 터져서 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허공 안에도 그냥 생명들이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뜨면 강하니깐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터지니까 슬그머니 해서 이렇게 뜨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연구해 낸 거죠.

정신세계에서 뜨는 비행기는 무엇일까. 앞으로는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다가 하던 것을 마음으로, 지금은 단추만 누르면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의 불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연구하며 어떻게 우리…. 아니 그건 어디로 갔든지 우리 생활부터 알아야 하고 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바로 이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기 무전전화기를 놓지 않고 어떻게 무전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각자.

예수도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부터 믿어라.” 했는데 쓰는 사람들이 그 도리를 모르니까 예수만 믿으란다고 한데로 모은 거죠, 그게.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모두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어라.” 이러니까 편집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 길을 걸어 보고 그 속을 알아 봐야 알지 자기가 그 속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만 살았으니 표현을 하기를 그럴 수밖에. ‘예수만 믿으란다’ 이렇게 썼던 거죠. 하하하….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잘못됐을 거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도 ‘아이구, 이거는 참 죽을 꿈이고 이거는 안 되는 꿈이야. 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꿈이 꾸어지나?’ 요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꾸릴 하고선 ‘아이고, 새달엔 언짢대. 석 달 있으면 뭐가 재앙이 온대.’ 요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안의 모든 의식들이 고렇게 따라 주는 겁니다. 따라 주니 그 재앙이 안 오고 배길 수가 있나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4월 28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70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병오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 접수처
경기남부지사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010-5323-0834
부 산 지 사 010-5640-8883 이도경
경 남 지 사 010-3860-7008 성낙두
광주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 북 지 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경북지사 010-4152-4376 김선행
충 청 지 사 010-8341-0560 유재상
강 원 지 사 010-7339-8688 이동격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⑧ 소리는 손가락 밖에 있었다

현 너머 마음이 들리는 시간

〈絃〉

강습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분들은 이미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무거웠던 몸, 오는 길에 스쳤던 생각,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들까지. 저는 한동안 그것을 몰랐습니다. 악기를 꺼내는 순간 그것들을 전부 없는 것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어요. 뭔가 삭막해요. 기계적으로 줄만 뜯는 것 같아서요."

문 앞에 세워둔 것들

나이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른 분들이니, 개인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예의라 여겼습니다. 수업은 수업답게, 악기와 소리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괜한 말을 꺼냈다가 실례가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강습실 안으로 몸만 들어왔을 뿐, 마음은 여전히 문 앞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오십 년이 걸린 첫 음

그날 이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 지나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한 분은 젊은 날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듣고 언젠가 꼭 배우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오십 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그 뒤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뒤에 악기를 잡으면, 손이 달랐습니다. 같은 손인데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줄에서 나는 소리도 조금 더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기술을 더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연습을 더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참아온 시간을 먼저 알아줄 때

몸에는 그 세월이 전부 깃들어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굳어온 습관, 오랫동안 쌓아온 긴장,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아는 것들까지. 그것은 악기 앞에서도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줄을 누르는 방향, 힘을 싣는 방식, 틀렸을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 저는 한동안 그것을 고쳐야 할 것으로만 봤습니다. 기술로 풀려 했고, 반복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몸은 더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고집이 어디서 왔는지가 보였습니다. 보이자 달리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 언어로, 그분 삶에 맞닿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참아온 몸에는 '놓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참아온 시간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무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 소리, 손끝 아닌 삶이 빚어내
강한 억누름은 줄도, 마음도 끊게 해
내 안의 소리 알아차림, 비움의 시작

관세음(觀世音), 강습실에서 읽다

경전에서 관세음을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다'고 표현한 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귀가 아닌 온몸으로 소리를 받아 안는다는 것. 소리를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나오는 자리까지 함께 보는 것.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낀 것은 경전이 아니라, 이 강습실에서였습니다. 소리는 손가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전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비우려 할수록 더 어수선해졌다

명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비우는지를 모르겠다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더 좋은 호흡법과 더 올바른 자세를 찾고, 생각이 올라오면 억누르려 했습니다. 억누를수록 생각은 더 크게 올라왔고, 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요즘 무언가에 치여 마음이 복잡한 날이 많다면, 혹은 명상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막막함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순서가 달랐던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온전히 듣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억누르고 있는 것, 외면하고 있는 것,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고 쌓아둔 것. 그것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비로소 그분들의 굳은 손가락이 풀렸던 것처럼, 가야금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력이 너무 단단하면 왼손 시김새가 먹히지 않습니다. 소리에 숨결을 불어넣는 그 섬세한 손놀림이 딱딱하게 굳은 줄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억지로 더 강하게 누르다 보면 결국 줄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지 먼저 듣는 것, 그 알아차림 하나가 비움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강습실엔 굳은 손가락으로 줄을 더듬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저는 악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그날의 소리를 바꿉니다. 손가락을 바꾸고, 어쩌면 그 한 시간을 버티고 온 하루 전체를 조금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야금의 소리는 줄 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고 온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가야금 명상곡 'Into Nothing'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㉜ 오메가3 원료에 대해

"오메가3, 원료사 꼼꼼히 확인하세요"

'따르릉~ 따르릉~.'

"네! 약국입니다."

"약국에서 사간 오메가3가 너무 비려!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

"아버님, 오메가3는 생선에서 뽑아낸 기름이니까 당연히 바다 냄새가 좀 나죠."

"이건 바다 냄새가 아니야. 썩은 냄새야."

"그럼 가지고 오세요. 바꿔드릴게요."

몇 시간 뒤, 전화를 건 고객이 오메가3를 들고 약국에 들어오셨다. 평소 자주 방문하시는 매너 좋은 점잖은 어르신이었다. '이분이 억지 투정을 하실 분이 아닌데' 하는 의아한 마음에 약통 뚜껑을 열고 코를 가져다 대는 순간 '유조선이 침몰한 바다 냄새'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만큼, 평소 맡아보지 못했던 불쾌한 기름 찌든 냄새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 확인하고 선택한 제품인데….'

좋은 원료를 사용한 오메가3는 흔히 떠올리는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신선한 바다향이 난다. 아니, '신선한 바다향'이라고 하면 조금 과장이고 '불쾌하지 않은 생선 향'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다. 혹시 보관 방법이 잘못됐나 싶어 여쭤보니, 약국에서 안내한 대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잘 두고 드셨단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 진열된 새 제품을 꺼내 뚜껑을 열어봤다. 역시나 같은 냄새였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해당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약사님, 그거 이번 배치 생산하면서부터 원료 회사를 바꾸었다고 듣긴 했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다.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근본(원료)이 썩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나는 오메가3의 형태 못지않게 원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원료사를 꼼꼼히 따져 오메가3를 사입하고 판매하게 됐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오메가3 원료 이야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이 많이 담긴 내용이다. 세상의 모든 오메가3 원료 회사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겪은 제품 중심으로 공부해 온 범위 내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이니 참고용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다.

1. KD Pharma

독일의 KD Pharma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메가3 정제 기술을 가진 회사로, 고순도·고함량 제품을 만들기 위한 오메가3 원료를 생산한다. 기술력이 높은 회사답게 자사 원료를 사용한 임상 데이터도 많은 편이라, 가격대는 높지만 좋은 오메가3 원료를 찾는다면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는 회사다. 뒤에 소개할 DSM 회사의 생선 기반 오메가3 원료 라인도 2024년 KD Pharma가 인수해 명실공히 세계 최대 오메가3 제조사가 됐다.

KD Pharma, 세계 최고 정제 기술 보유
BASF, 美 cGMP 인증받은 시설서 생산
DSM, 미세조류 DHA 기반 오메가3 집중

2. BASF

의약품의 원료 생산 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BASF(바스프) 회사의 오메가3도 유명하다. 예전 Pronova BioPharma를 인수해 현재의 BASF 오메가3 사업부가 됐는데, 거대한 원료 회사답게 오메가3를 의약품 원료급으로 관리하며 생산하고 있다. 미국 의약품 생산 기준인 cGMP를 인증받은 시설로 생산하고 있으니 품질관리 면에서 최상급의 오메가3 원료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정성·일관성·품질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오메가3의 산패 관리 및 불순물 관리에 매우 엄격해 안전한 오메가3를 찾는 분에게 추천해 드리기 아주 좋은 회사다.

3. DSM-Firmenich

네덜란드의 DSM 사는 비타민의 원료 회사로도 아주 유명한데, 특히 영국산 비타민C와 비타민D의 대표적인 생산 회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원래 어유 오메가3와 미세조류 DHA 라인을 모두 보유했는데 최근 2024년 어유 오메가3 사업부는 KD Pharma에 매각해 지금은 미세조류 DHA 기반 오메가3만 생산하고 있다. 미세조류 기반 오메가3는 중금속이나 생선 비린내의 걱정이 없고 DHA 함량이 높아서 임산부와 유아용 오메가3로 인기가 높다.

4. AlaskaOmega

알래스카오메가 회사의 오메가3는 알래스카 베링해의 야생 명태 원유를 사용해 미국 오하이오주의 인증 받은 시설에서 생산한다. 원료의 어종과 산지, 공급망 출처가 명확해 신뢰도가 높고, 지속가능한 수산 인증(MSC) 기반 공급망을 확보해 착한 기업 이미지도 있다. 제조시설은 GMP 및 FSSC 22000, ISO 9001을 인증받아 원료의 품질에 더욱 믿음을 준다. 주의할 점은 원료사 이름이 지역 이름이라 알래스카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든 오메가3라는 의미로 '알래스카오메가3'라는 제품명을 가진 상품도 있으니 혼동하기 쉽다. 방심하면 속을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원료사의 마크가 제품에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원료를 쓴 제품은 절대 겸손하지 않다. 비싼 돈 들여 좋은 원료를 사용했는데 누가 그걸 일부러 숨기고 드러내지 않겠는가. 마케팅 수단으로 강조하면 강조했지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품의 포장을 유심히 살펴보자. 분명 좋은 원료를 사용한 오메가3 제품이라면 마치 자랑하듯 그것을 포장 어딘가에 새겨놓았을 것이다. 그래도 알기 힘들다면 동네약국의 약사에게 물어보자. "오메가3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가 아니라 "좋은 원료를 사용한 오메가3로 추천해주세요"라고 말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일일시호일

원인불명 중증 질환 캄보디아 니엔 씨
"치료를 이어 가도록 도와주세요"

패혈성 쇼크·호흡부전 겹친 위중 상태
가족 곁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 치료 후에도 호흡 곤란 지속
병원비 2000만 원…치료 중단 위기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⑧

척박한 땅에 장인의 꿈을 심다



2011년 뽀디봉 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이 어린 학생들의 혼에는 세계가 경탄하는 문화유산을 빚어낸 찬란한 예술가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국제 NGO가 개발도상국과 빈곤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장 오늘을 버티게 할 식량과 물을 쥐여주는 것과 내일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식량과 물이 사람을 가까스로 '살게(Survive)' 한다면, 기술과 교육은 비로소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Thrive)' 만듭니다.

2013년 당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마실 물'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많은 재가불자님들의 도움으로 3년간 이 마을에 37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이로써 열 가구당 한 개꼴로 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학교 자립을 위해 5년 동안 수익성 좋은 망고, 바나나, 코코넛 나무를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묘목만 심어두면 이내 울창한 숲이 돼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줄 거라 믿었지만 기대는 6개월간 이어지는 잔혹한 건기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교과서도 없이 글을 배우고, 매일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먼 길을 걸어다녔습니다. 통학용 자전거 한 대 없이 비를 흠뻑 맞으며 오가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은 수레꾼의 마음을 수없이 미어지게 했습니다.

수레꾼 중학교의 생물교사로 부임한 리 톨바티(Ly Tolvatey) 선생님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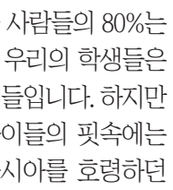
"저는 201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선발시험에 합격, 교사 연수 과정을 수강하고 2013년에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학교 가는 길이 좋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열악했습니다. 우기에는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곤 했는데,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길에서는 어김없이 내려서 밀고 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옷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학교로 출근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한 번도 학교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건기에는 마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우기에는 거센 빗줄기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수레꾼은 이 열악한 교육환경의 굴레를 근원적으로 끊어낼 확실한 열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현재 뽀디봉 마을 사람들의 80%는 가난한 농부들이며 우리의 학생들은 거의 농부들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아이들의 핏속에는 600년 동안 동남아시아를 호령하던 위대한 앙코르 제국의 혼과 세계가 경탄하는 문화유산을 빚어낸 찬란한 예술가와 장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위대한 후손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세운 수레꾼 학교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반짝이는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꾼은 당장 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이 척박한 가난의 땅을 딛고 일어설 '농업 기술'과 이들의 혈관에 잠든 예술적 혼을 깨울 '공예 기술'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머지않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라나게 될 아이들. 그들의 미래를 위한 '기술·공예학교 건립'이란 수레꾼의 새로운 꿈이, 거친 흙먼지 길 위에서 이제 아름다운 첫 출발선에 섰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④ 화연(華緣)으로 열린 봄, 도량에 스미는 공양의 시간

공양, 마음 나누고 인연 잇는 수행

봄은 소리 없이 꽃으로 먼저 온다. 바람결에 실린 매화 향이 도량을 스치고 지나가면, 가지 끝마다 깃든 작은 생명들이 조용히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든다.

겨우내 적막하던 산사의 공기는 서서히 풀리고, 보이지 않던 생명의 기운이 고요히 번져간다.

산사의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말 없는 법문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일깨운다. 산수유의 노란 빛은 봄의 시작을 알리고, 도량에는 다시 생명의 숨결이 스민다.

스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길목마다 피어난 꽃들은 수행자의 마음처럼 소박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바라보는 이의 마음마저 고요히 물들인다.

어느 날 도량에는 반가운 손님들의 발걸음이 잇따른다. 꽃을 따라, 향기를 따라 찾아온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이곳에 머문다.

산사를 지키는 세 마리의 개는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맞이하고, 때로는 멧돼지로부터 도량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봄날의 풍경에 생기를 더한다. 사람과 자연, 생명이 어우러지는 이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다.

꽃을 따라 이어진 인연들은 산사에 또 다른 온기를 더한다. 낯선 듯 머물다 어느새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 인연은 말없이 깊어지고 따뜻한 기운은 도량 곳곳에 스며든다.

꽃 따라 이어진 인연, 산사 온기 더해

계절 밥상에 순환 이치·생명 질서 담겨

함께하는 사찰 공양, 인연 깊게 가꿔줘

사찰의 공양간에도 새로운 기운이 깃든다. 매화와 진달래, 벚꽃이 산자락을 물들이는 사이, 겨우내 움츠렸던 산나물은 조용히 고개를 든다.

자연은 수행자를 위한 또 하나의 공양을 마련하고, 이 계절의 밥상에는 순환의 이치와 생명의 질서가 고스란히 담긴다.

한 그릇의 음식에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함께 깃든다.

도량에서는 갓 돋은 봄나물로 손님맞이 공양을 정성껏 마련한다. 부지깽이나물을 넣어 끓인 된장국은 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두릅은 가볍게 튀겨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소스에 곁들인다. 엄나무 순은 데쳐 고추장 매실청에 버무리고, 머위잎 쌈밥에는 자연의 향을 담아낸다.

함께 산자락을 거닐며 채취한 쑥과 진달래꽃으로 계절의 정취를 더한다. 쑥은 정성껏 다듬어 향긋한 쑥버무리로 빚고, 진달래는 연근을 곱게 갈아 반죽에 더해 은은한 화전으로 완성한다. 더불어 민들레잎과 신선초에는 두유로 만든 마요네즈에 들깨를 곱게 섞어 담백한 샐러드로 빚어낸다.

손님들이 돌아가실 때, 함께 채취한 산나물을 양손 가득 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 또한 더없는 행복으로 다가온다.

소박한 나눔과 정성 어린 손님맞이는 그 자체로 수행이 되어, 머무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긴다. 꽃으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산사의 온기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건넨다.

사찰의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다. 마음을 나누고 인연을 잇는 수행의 한 모습이다. 자연이 내어준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정성을 다시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배운다.

봄꽃이 피고 지듯 인연 또한 머물다 흘러가지만, 그 순간 함께 나눈 공양의 온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그 따뜻한 기억은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며, 산사의 봄은 해마다 더욱 깊어진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⑮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성자의 집

범어사 독성전의 문은 독특하다. 문 앞 두 기둥 사이에 아치 형태로 된 또 하나의 문이 있다. 무지개 모양의 문틀만 있는, 문 없는 문이다. 통나무를 구부려 만든 문틀의 곡면이 창방과 기둥을 만나 이룬 세모꼴의 벽체에는 탐스럽게 핀 모란이 돋을새김되어 있다. 그런데 그 꽃은 그냥 피어 있는 게 아니다. (어릴 적 숨은그림찾기에 재능을 보인 사람이라면 금방 찾겠지만) 두 사람이 머리 위로 팔을 뻗어 꽃을 받치고 있다. (마주 보았을 때) 왼쪽은 선여인, 오른쪽은 선남자다. 우리를 대신하며 꽃을 '받쳐', 우리로 하여금 꽃을 '바치는' 공덕을 짓게 하니, 이 선남선녀야말로 정녕 보살이다.

무지개 문틀 안 진짜 문에는 격자 빗살이 교차하는 곳마다 활짝 핀 매화꽃을, 문살에는 잎사귀를 새겨 올렸다. 안에 어떤 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까.

독성전 안에 계신 분은 '나반존자'다. 한국불교에서는 나한 가운데서 신통이 제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나한은 아라한을 줄인 호칭인데 한역으로는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이라 하여 '응공', 번뇌라는 적을 다 물리쳤다 하여 '살적', 배워야 할 바를 모두 이루어 마쳤다 하여 '무학'이라고도 한다. 수행의 차원에서는 깨달아 마쳤지만 부처는 아닌, 불보살과 인간 사이의 성자가 아라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한상은 어떤 때를 써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이다. 나한신앙의 매력이 거기에 있다.

손영자 작가



범어사 독성전.



한국불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필자가 머무는 사찰은 인구소멸 지역의 산간에 자리하고 있다. 신도 구성만 보더라도 지역 불자보다 도시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이 두 배 이상 많다. 이들이 사찰을 찾는 이유는 신행과 함께 자연 속에서의 쉼과 치유에 있다. 이러한 흐름을 마주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10년 후, 30년 후 이 사찰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올해 유사한 환경의 사찰들을 조사하며 나름의 해답을 찾아볼 계획이다.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당장의 운영을 이어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찰의 존속과 효과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바람이 생겨났다. 종단이 지역별·유형별로 사찰의 발전 방향과 존속 방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

시선을 넓혀 보면 이 질문은 개별 사찰을 넘어 종단 전체로 확장된다. 10년 후, 30년 후 우리 종단은 어떤 모습일까.

이미 20여 년 전부터 종단 존립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총무원 집행부는 승려복지 확대, 요양시설 운영, 포교 거점 사찰 조성, 출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사업이 단절되는 사례 또한 반복돼 온 것이 현실이다.

종단 운영 아우를 체계적 설계 필요해
미래 전략 컨트롤타워 구축이 첫 걸음
총무원장 선거서 구조적 해법 제시되길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을 넘어 종단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분석,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단계별 실행 계획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그래야만 종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종단의 현실을 짚어보면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개별 사업과 현안 대응에는 역량이 집중돼 있으나, 종단 전체의 미래를 조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종단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전략, 이를 뒷받침할 정책 연구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각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평가와 보완이 반복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종단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총무원장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다양한 공약이 제시된다. 승려복지, 교구 활성화, 포교 확대, 비구니 역할 강화 등은 매번 빠지지 않는 핵심 의제다. 이는 그만큼 중요하지만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뜻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공약의 이면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구조와 계획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약속하는 공약을 넘어, 30년 후에도 건재한 종단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업을 가능하게 할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다.

롱테일의 가르침 '버려지는 존재란 없다'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국의 크리스 앤더슨은 2004년 디지털 시장을 관찰하며 롱테일 법칙(Long Tail Theory)을 세상에 내놓았다. '긴 꼬리의 역설'로 불리는 이 개념은 판매량이 적은 다수의 비주류 상품군이 소수의 인기 품목보다 더 큰 총합 수익을 창출한다는 원리다. 이는 상위 20%의 핵심 제품이 매출의 80%를 점유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파레토의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세계 최초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Amazon)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오프라인 매장이 포기했던 비주류 서적들을 판매목록에 올렸다. 그 결과, 1년에 단 한 권 팔릴까 말까 한 수많은 꼬리들이 모여 베스트셀러 몇 권의 수익을 압도하는 성과를 냈다.

유통 및 저장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과거 외면받던 비주류 콘텐츠가 축적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다. 물리적 제약이 증발한 자리에서 긴 꼬리는 더 이상 잉여가 아니라, 생태계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으로 부상한다. 무수한 틈새 콘텐츠가 보편적 콘텐츠와 나란히 공존하며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 이것이 롱테일의 진면목이다. 효율의 칼날 아래 도려내졌던 미미한 존재들이 사실은 생태계를 풍요롭게 가꾸는 주인공임을 입증한 셈이다.

이제 시선을 시장 밖으로 돌려보자. 우리는 경제적 가치로서 롱테일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문법은 여전히 화려한 머리에만 매몰돼 있지는 않은가. 생산성이라는 명분으로 주변부의 삶을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아마존의 성공에서 읽어내야 할 본질은 매출의 비결이 아니다. 세상에 팔리지 않는 책은 있어도 무가치한 책은 없다는 준엄한 진실이다.

디지털 환경서 비주류 콘텐츠의 부상
세상 받친 미미한 존재의 증명 사례
낮은 곳 향한 시선·포용, 공생 실천 길

이 교훈은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귀함을 지닌다는 불교적 지혜와 궤를 같이한다. 만물이 우주의 인드라망처럼 촘촘히 연결돼 있기에, 세상에 함부로 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볼품없다며 고개를 돌리는 길가의 돌 하나,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조차 제자리에서 고유한 진리를 설하고 있다. 너와 나,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심을 거두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정견(正見)의 가르침이다.

만물 중 스승 아닌 것이 없으니, 롱테일 이론은 정견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라 할 만하다. 가려진 것들을 들춰내고 하찮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의 전환은 단순히 시장의 확장을 넘어 가치 체계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사소한 다수가 결정적 근간이 되는 순간,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껏 우리는 정점에 서기 위해 분투해왔고, 선택받지 못한 다수는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꼬리 밑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디지털 시대의 롱테일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존재들이 실은 세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였음을 알리는 존재론적 역습이다.

이제 관점을 옮겨야 할 때다. 정점의 화려함 대신 꼬리의 깊이와 넓이를 응시해야 한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둘 아니게 바라보고 하나로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생(共生)의 참된 의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화쟁, 정치가 답할 차례다

불교도대법회서 정치권 '화합' 한목소리
선거 앞 갈등 대신 타협 가치 존중해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행된 불교도 봉축대법회는 '화쟁'이라는 분명한 화두를 던졌다. 종단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쟁의 지혜로 갈등을 넘어 공존과 상생의 대도약을 다짐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특히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 지도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 메시지는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화합과 상생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언 이후의 행보에서 그 진정성이 판가름 날 뿐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정치와 사회의 지도자가 상대를 꺾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도반으로 여길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찾고 대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원융회통 정신에 따라 세대 통합과 국민 평안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각 당 대표들도 여야를 넘어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밝히겠다고 화답했다.

화쟁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차이를 인정하되 대립을 극복하는 지혜를 뜻한다. 이는 오늘날 정치와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대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타도할 적'으로 규정하는 데 익숙하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언어는 특히 더 거칠어지고, 타협은 쉽게 '패배'나 '야합'으로 매도되기 일쑤다. 이런 풍토에서 화합과 상생을 정치 과정에 구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결국 봉축대법회의 의미는 정치권이 이 자리를 진정한 '약속'의 장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서로 다른 물을 섞어 연못을 맑히는 합수식은 상징적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합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타협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화합은 현실이 된다.

오늘날의 갈등은 정치적 진영 대립을 넘어 세대 간 인식 차이, 양극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이런 상황에서 화합은 '좋은 말' 이상의 구체적 실천을 요구한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 청년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불교계 또한 이 책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불교 스스로 갈등을 중재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듬는 실천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국민 역시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극단적 주장에 편승하기보다 타협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화합은 지도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공통의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일상의 차원에서부터 시작된다.

화합과 상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그 실현 방식은 추상적일 수 없다. 정치권은 구체적 협치로, 불교계는 실천적 자비로,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응답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4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4월 2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4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청운사
• 주 지 : 도원 (속명 : 유삼영)
• 주 소 :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산91-2

위 사찰은 종지종풍을 더이상
수행 할수가 없어
귀 종단을 탈종합니다.

2026년 4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재질 : 인조가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재질 : 인조가죽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